

## 안동시 도산면의 세 가지 山志

허 흥 식\*

- I. 머리말
- II. 도산기의 내용과 『도산지』의 추정
- III. 『청량지』의 서술 공간과 특성
- IV. 미완성 초고 『용산지』의 내용
- V. 『淸涼志』와 『淸涼誌』의 차이와 남은 과제
- VI. 맺음말

### 국문초록

경상북도 안동시의 동쪽에 위치한 陶山이 알려진 시기는 退溪 李滉(1501-1570) 이후이다. 도산은 오늘날 도산면의 기원과 관련이 크다. 陶山記는 이황이 지었고 이황의 후손이 주도하여 완성한 세 가지 산지, 즉 陶山志, 淸涼志, 龍山志의 기초가 되었고 확대시킨 요소도 적지 않다. 도산기는 7대삼곡을 벗어나지 않으나 후에는 도산의 서쪽 雲巖에서 시작하여 낙동강을 거슬러 동쪽 청량산에 이르는 도산구곡의 보충은 이이순의 후계집에 실린 도산지를 도산구곡에 대해서 보충하려던 詩并序에서 확인된다.

도산면이 있는 안동시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소백산맥을 넘어 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명예교수 / heohskr@hanmail.net

한강유역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이다. 신라와 고려의 전성기에는 대체로 상주보다 지역의 위상이 낮았으나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한 이후 상주를 능가하는 계수관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를 비롯하여 현재도 대체로 이를 계승하였다. 도산지는 세 가지 산지의 모형이되었다. 진성 이씨의 기반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완성시킨 吾家山誌라고도 불린 淸涼誌로 종합되기까지 꾸준히 자료를 보충하거나 간추리고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도산지는 이황의 6세손 이수연이 이황의 도산기를 순서대로 더욱 보충하였다고 짐작되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이황의 도산기나 이수연의 도산지는 도산 부근의 七臺三曲을 언급했을 뿐이지 이이순이 제시한 도산구곡의 설정에는 1)도산을 서사로 9곡의 이름을 칠언절구로 배치하고 2)앞선 지명에서 방향과 거리를 표시하였으며 3)마지막으로 이황의 시문에서 찾아서 관련된 부분을 축약하여 전거로 붙였다. 세 가지 가운데 이이순이 보충하려던 시문에서 도산구곡이 처음 명시되었다. 또한 도산지에는 산천에 해당하는 도산구곡이나 청량지와 용산지에 설정한 다른 항목이 있었을 가능성은 적으나 오가산지로도 불린 淸涼誌에서 이이순의 도산구곡의 확정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확정하였다.

◆ 주제어

이황, 도산기, 이세택, 청량지, 용산지, 도산구곡, 이이순

## I. 머리말

山志와 紀行文은 명승지의 답사에 선행한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 자료이다. 안동시 도산면은 낙동강의 상류 동쪽에 있고 북쪽으로 소백산맥을 넘으면 남한강 상류의 수계와 마주치는 중요한 길목이다. 도산면은 도산서원을 명승지로 출발시킨 退溪 李滉(1501-1570)을 떠나서 말하기 어렵다. 이황은 성장과 과거에 응시하기까지 초반기, 급제하여 仕宦에 몰두한 중반기, 벼슬을 멀리하고 도산 아래에 양진암을 짓고 도산서당을 열어 서수양과 지역의 교육에 힘쓴 만년으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황의 생애에서 만년의 10년 동안 도산을 가꾸기에 집중하였다.

도산면은 兔溪라 불린 좁은 지역에서 시작하여 후에 지역편제로 확대된 공간이다. 이황의 생애 초반기는 예안현의 중심지인 용두산 아래 雲谷과 溫溪에서 서남 분천으로 연결된 공간이 중요하였고 용산이라고도 줄여서 불렸다. 이황은 만년에 용산의 동쪽 도산 아래를 주로 생활과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였고 청량산까지 확대하여 수련과 시문을 다듬은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도산면은 청량산을 제외하고 부근의 태자리를 포함하였다. 낙천의 남쪽으로 예안면을 설정하고 북동의 태자리가 도산면으로 편제된 시기는 조선왕조가 끝난 이후였다. 이황은 이곳 산지의 기초인『陶山記』만 남겼으나 그의 후손이 주도하여『陶山志』,『淸涼志』,『龍山志』의 순서로 완성하였고, 19세기 후반『吾家山誌』로도 불린『淸涼誌』로 종합하였다<sup>1)</sup>.

도산면에 해당하는 산지의 기원은 모두가『도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도산지』는 이황의 6세손인 李守淵이 지었고,『청량지』와『용산지』는 이황의 8세손인 李世澤이 주도하여 완성시켰다.『도산지』는 후에 없어지고『청량지』는 현존하지만 원본은 분실되었고 보충하려던 몇 가지

1) 때로는 志와 誌를 혼용한 사례가 많다. 산지에서 志란 초기의 명칭이고 후에는 誌라 쓴 사례가 많다. 특히 이세택이 쓴『청량지』와『용산지』에서 이런 사례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 李世澤의『淸涼志』와 李晩輿의『吾可山誌』라고도 불린『淸涼誌』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사본만 현존하고 이 가운데 선본을 골라 현대에 이르러 활자화되고 번역되었다.<sup>2)</sup> 『용산지』만 최근에 원형의 초고로 나타나 확인된 사본이고<sup>3)</sup> 이황과 관련된 세 가지 산지의 유일한 원형이고 육필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2020년 1월 13일 경북유형문화재 551호로 지정되었다.

『도산지』는 이름으로도 도산기와 상통하지만 범위로는 동쪽으로 『청량지』와 북쪽의 『용산지』로 확대된 산지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수록된 완성품이었다. 『도산지』는 이황의 도산기를 토대로 시문을 보충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짐작된다. 도산기와 『도산지』는 이황의 만년의 활동지역인 도산에 집중한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다. 『도산지』는 완성된 다음 18세기에도 이용되었고 보충하려던 부분만 이황의 9세손 李頤淳의 문집인 『後溪集』을 선두로 몇 가지 사본이 확인된다. 『도산지』의 대상은 진성이씨가 眞寶에서 안동의 禮安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던 溫溪를 포함하지 않고, 이황에 이르러 새로 개척한 陶山의 남쪽으로 낙동강까지 좁은 공간을 말한다.

『청량지』는 청량산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청량산은 대부분 공간이 예안현에서 벗어나 태자리와 함께 조선시대의 대부분 시기 才山縣에 속했고 지금은 봉화군 명호면에 속한다. 청량산은 명호면의 11봉과 남쪽에 가까운 예안면의 축융봉을 합쳐서 12봉으로 불리고 모두가 도산면의 영역을 벗어난 동쪽에 위치한다. 그러나 청량산을 답사한 기록은 주로 이황과 관련된 선학과 제자와 그 후손들에 관련하였고 『청량지』는 물론 이후의 산지도 이황의 후손이 주도하여 저술하였으므로 도산면을 떠나서 말하기 어렵다.

도산의 양지바른 兔溪는 이황의 호인 退溪와 깊이 관련된 공간이다. 1545년부터 이황은 토계에 養眞庵을 짓고 이곳에서 벼슬을 멀리하면서 修己를 강조한 주자의 성리학을 목표로 삼았다. 이황은 토계를 퇴계로 고쳐 호로 사용한 이후 도산 남쪽 낙동강 기슭 가까이 조선성리학을 탐구한 도산서당을 이루는 과정을 만년의 자서전에 가까운 도산기를 남겼

2) 청량산박물관, 『淸涼誌』, 봉화군, 2012.

3) 허홍식, 「용산지의 서지와 보충할 과제」, 『경북불교의 재발견』, 한국국학진흥원 2017.

다. 이황은 호남의 유학자 奇大升에게 도산기를 보내어 함께 朱熹의 수기를 강조한 지방 중심의 교육을 중요시하면서 새로운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淸涼志』의 원본은 훼손이 심하여 여러 이본을 종합하여 다시 정본을 만들었고 5종이나 전한다. 이들 5종 사이의 엄밀한 대조를 통하여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확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청량산은 봉화의 서남의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항상 안동도호부의 영향을 받았다. 현재 행정 구역으로 도산면에 속한 태자리는 본래 봉화군의 재산현의 일부였을 정도로 근접하였다. 이황은 체력을 단련하고 시문을 구상한 공간으로 청량산을 중요시하였고 月川 趙穆을 비롯한 여러 제자가 도산과 청량산을 아끼며 동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황에게 감화를 주었던 周世鵬은『遊淸涼山錄』을 지었고 이후 이는 산지의 저술에도 참고가 되었다.

李守淵이 지은 『陶山志』는 세 가지 도산면의 산지 가운데 가장 먼저 완성되었고 李世澤이 주도하여 완성한『淸涼志』와 『龍山志』의 지침이 되었다. 『도산지』는 현존하지 않아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황의 도산기를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보충하였음이 후대의 문집에서 확인되므로 『용산지』나 『청량지』의 연구에도 먼저 살펴야할 과제이다. 도산면은 이황이 陶山의 기슭에 세운 陶山書堂은 龍壽寺의 東庵이 자리 잡은 언덕이었고 양진암과 함께 구현되었다. 낙동강 북 예안현의 핵심 지역에서 도산면이 출발하였고 낙천의 남쪽 예안면이 오늘날 예안현의 이름을 계승하였다. 세 가지 산지 가운데 원본이 없어진 『도산지』를 출발점으로 저술된 순서대로 『청량지』와 『용산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들 세 가지 산지를 합쳐 거시적으로 연관성을 파악하려면 저술된 순서대로 서술이 불가피하다. 이들 세 가지 산지는 『용산지』를 처음 알리는 과정에서는 현존하는 원본의 순서대로 설명하였고 실제로는 이들 산지가 완성된 역순으로 접근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를 합쳐 도산기로 시작된 산지의 저술로서 공통점과 원본이 상실된 『도산지』와 원본이 아니지

4) 필자는 『용산지』를 처음 소개하면서 『도산지』와 『청량지』, 그리고 『오가산지』의 순서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만 후대에 보충한 사본인 『청량지』를 통하여 초고로 남은 『용산지』의 순서로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吾家山誌』라도 불린 『淸涼誌』로 종합되었음을 밝히면서 보충할 과제를 찾고자 한다.

## II. 도산기의 내용과 『도산지』의 추정

도산기의 본래 명칭은 저자인 이황의 문집에 실려 간행된 판본과 여러 사본이 공존한다. 일반적으로 저술은 사본에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판본인 문집본이 표준에 가깝다. 표준이란 육필본이 아닌 목판본이고 후대에 여러 교정자가 협력하여 검증을 거쳐서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다. 목판본인 『退溪先生文集』에 실린 陶山雜詠并序가 분석할 대상이고, 일반적으로 이를 합쳐 『陶山記』라 불린다.

병서란 詩에 해당하는 운문의 앞에 쓴 序를 말하고 散文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병서와 시를 합친 글은 서유럽 중세의 유로지(Eulogy)와 상통한다. 동아시아의 碑나 墓誌와 傳記에도 쓰인 문체이고 끝에 시로 쓴 銘이나 讚을 합친 문학의 형식과 상통한다. 도산기도 병서와 잡영의 순서로 쓰였고 시의 부분도 앞에 쓴 산문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였으므로 비명이나 묘지명, 또는 전기의 찬보다 월등 여러 수의 시를 포함한 잡영이란 특징이 있다. 이황이 도산기를 한성에 있던 奇大升에게 보내고 이를 받은 시기는 정확하게 1561년이었다. 기대승은 이를 도산기라 불렀고, 실제로 도산기를 지은 같은 해에 해당되고 현존하므로 자료의 가치가 더욱 크다.<sup>5)</sup> 기대승에게 전달한 인물은 授受관계의 두 학자로부터 감화를 받은 金就礪였다. 김취려는 먼저 타계한 이황이 기대승과 성리학을 토론한 여러 차례 왕복서의 전달에도 관여하였다.

기대승은 이황이 보낸 도산잡영병서, 즉 도산기를 받고 같은 시기에

5) 『高峯集』續集 권2, 退溪先生陶山記文跋 右陶山記文一篇及逐處記事七言十八絶。又五言雜詠二十六絶。別錄四絶。併有題識。皆先生所手寫。間有塗改處。蓋初間草本也。

낙향하지 못하고 이황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답신을 썼다. 이 답장은 이황의 생전에 도착되지 못하였고 기대승도 이황이 서거한 다음 2년 후에 낙향하는 도중에 별세하였다. 이황은 국문가사에도 관심이 컸고 도산십이곡은 바로 국문가사에 속하였으나 한문으로 쓴 발문만 문집에 실려 있다. 도산십이곡이란 12수로 쓴 연시를 1565년에 완성하였다고 간주하는 통설이 있다. 도산십이곡이란 명칭은 12수의 시가란 뜻이고 실제로도 12수의 한글 단가인 시조이고 도산구곡을 연결시킨 내용도 아니다. 이 단가는 이황이 자연에 몰입하거나 이를 수양으로 강화시키려는 의지를 나타낸 국문단가를 모은 연시이다.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구체화한 지명이나 시설의 명칭에 대해서는 이보다 七臺三曲을 읊은 증거는 있지만<sup>6)</sup> 주희의 무이구곡에 맞추어 완성한 근거로는 지명의 수요가 일치하지 않고 일부만 언급한 도산기에 가깝다.

도산기는 주희의 배향한 서원을 세운 武夷山の 산지인 『武夷志』를 모형으로 저술되었다. 무이산의 구곡과 도산에서 도산서당이 있던 제오곡을 백록동서원이 있던 같은 중간 지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황의 문집에서 어디에도 9곡을 확정시킨 서술은 나타나지 않았다. 명종은 벼슬을 멀리하고 수기에 열중하는 이황이 머문 도산을 그림으로 그려오게 하였다는 증거가 있다.<sup>7)</sup> 이황이 도산구곡을 확정하지 않은 까닭도 자신이 국왕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주희와 견줄만한 자연도 자신의 수양도 부족하다는 겸양을 보이면서 구곡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피했을 가능성이 크다.

도산기는 『도산지』를 짓게 만든 직접적인 바탕이 되었지만 『도산지』가 후에 이세택의 『청량지』와 『용산지』의 저술방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추정된다. 다만 『도산지』가 현존하지 않으므로 『청량지』와 『용산지』의 유사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청량지』와 『용산지』

6) 『退溪集』 권1, 詩, 戲作七臺三曲詩 月瀾庵近山臨水。而斷如臺形者凡七。水繞山成曲者凡三。

7) 『明宗實錄』 권32, 명종 21년 5월 22일 壬子 “滉以病不得應召, 上於宮禁, 密令畫工, 貌寫滉所居陶山形勝以進。眷注之心, 常在於滉, 故模其所居之地, 作圖以覽”

는 『도산지』에서 서술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서 전범으로 삼았고 동시에 중복되지 않도록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도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도산기는 양진암과 도산서당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도산지』에서 두 가지 시설을 완성한 취지와 경위를 밝힌 형태의 산지이고 주자의 성리학을 심화시킨 방향을 제시한 문학으로 중요성에 국한시켜 조망하고자 한다.

『도산지』의 서문도 전하지 않고 인용되어 전하는 내용은 적다. 저자 이수연의<sup>8)</sup> 문집인 『靑碧集』에는 서문조차 없다. 청벽집은 이수연의 문집이지만 그가 편집한 문집이 아니다. 개인문집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신이 직접 시문을 편집하고 끝에 잡저나 잡록까지 수록하고 서문을 쓴 경우가 원형에 가깝다. 후대의 편집에서는 부록을 보충하고 후손이나 배향한 서원에서 발문이나 후지를 남긴 사례가 많다. 시문의 序에는 저자 자신의 저술에 썼던 서문도 포함된다. 그리고 잡저나 잡록은 자신의 사상이나 현실에 대한 의견을 수록한 진정한 의미의 논술이고 가치가 큰 대상이다. 그의 문집은 자신이 저술로 완성하지 않고 후손이 편집하였다. 청벽집에는 이수연의 5세손과 8세손이 쓴 발문과 후지만 각각 1건씩 실렸다.<sup>9)</sup>

이황의 도산십이곡은 연시조이고 실제로 이 시가 처음 실린 자료집은 『청구영언』이다. 일설에는 이황이 생전에 도산십이곡을 1565년에 조성한 한글본 목판본이 도산서원에 있었다고 한다. 『농암집』에는 그가 개작한 어부가를 비롯한 국문가사가 속집에 모두 실렸지만 『퇴계집』에는 국문가사는 없고 한문으로 쓴 서문만 실렸다. 현존하지 않은 『도산지』를 제외한 이세택의 청량산지와 『용산지』에 국문가사가 수록된 사례가 없으므로 『도산지』에도 이황의 국문가사가 실렸었다고 보기 어렵다.

8) 靑壁은 李守淵(1693~1748)의 호이고 자는 希顔, 퇴계 이황의 6세손으로, 李守恒·李野淳 등과 『退溪先生續集』·『陶山及門諸賢錄』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陶山誌』를 지었다.

9) 『靑壁集』 識 (李中麟)或者以(退溪)遺文之太略爲恨。然府君當日。世皆推思聖之傳道而其有功於斯文者。退溪續集言行錄。已公行於世久矣。註解考校諸子錄陶山誌等編述。莫非傳道旨訣。則文章於府君餘事耳。遺文之多寡。固無所重輕於府君。而只增後來子孫之茹痛而已。六世孫中麟謹識

이수연은 자신의 문집을 남기지 않았고 자신이 남긴 이황의 시문을 보충한 부분이나 성리학에 대한 저술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저술을 남겼으나 이를 자신의 저술이라 간주하지 않았다. 그는 6대조인 이황의 저술을 읽는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돕기 위한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였을 뿐이고 그가 혼자 모은 주석도 아니므로 저술이라고 간주하지 않은 듯하다. 그는 厚陵參奉과 翊贊의 벼슬에 올랐지만 명예직에 가깝고 이 때문에 이황의 저술에 몰두할 여유가 있었다. 실제로도 직무에 고심하거나 힘쓴 기록은 적다. 이보다 오로지 이황의 저술을 읽기에 도움을 주는 자료의 확보에 고심하였다. 중요성이 있는 필수의 참고자료라는 내용도 후에 타인이 감지하리라고 기대하겠다는 글도 없다. 청벽집에 그가 남긴 저술에 대한 서문이 하나도 없는 까닭도 자신이 모은 저술이 이황의 저술을 이해하기 위한 하찮은 자료집에 불과하다는 태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자료는 세월이 지날수록 이황의 연구에서 필수자료로 책이름을 약간 고쳐 간행하였고 이황의 저술을 이해하기 하기 위한 자상한 안내서와 같다.

청벽집은 이이순의 5대손인 晩寅의 跋文과<sup>10)</sup> 6세손 中麟의 後識에 요점이 요약되었고 『도산지』를 지었다고 명시되었다. 이보다 앞서 『도산지』는 저자의 사후 멀지 않은 시기에 완성된 읍지에도 올라 있다. 『도산지』가 완성된 정확한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수연의 생애와 함께할 정도로 도산기를 읽고 필요한 주석을 틈틈이 자료를 모아 자신이 이용하면서 만년까지 완성하였다고 짐작된다. 그는 『도산지』도 저술로 간주하지 않았음이 확실하지만 그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도산지』는 완성된 다음에 이를 빌려서 교정에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있을 정도로 이미 중요성이 있었다.<sup>11)</sup>

10) 『靑壁集』跋(李晩寅)吾家靑壁先生。以老祖六傳之孫。承再傳之學。其道孝悌。其德謙退。沉潛縝密之功。涵養踐履之篤。敦倫盡己之行。難進易退之操。大抵是陶山法門。一生精力。盡在陶山遺書。感發興起於是。體驗受用於是。而散佚尙多則收之爲續集。板本錯誤則正之爲攷校。旨義微奧則明之爲註解。陶山誌之撰述。言行錄之修整。諸子錄之致詳。皆先生衛道中一事。其有功於陶山。有得於陶山。爲何如也。(중략) 後學族五代孫晩寅盥手謹跋

『도산지』를 보충하려던 저술의 단편을 보여주는 글이 이황의 9세손에 해당하는 李頤淳(1754-1832)의 『後溪集』에 전한다. 이이순은 도산구곡을 여러 차례 유람하고 『도산지』를 보충할 체계적인 글을 남겼다. 이이순이 남긴 『도산지』를 보충하려는 내용은 도산기와 마찬가지로 시를 뒤에 쓴 병서의 형식이고 잡영에 해당하는 서시와 9곡에 대하여 읊은 칠언절구 9수를 포함하여 10수를 밝힌 핵심만 실렸다. 다만 병서의 끝부분에서 『도산지』를 보충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사실을 밝혔다.<sup>12)</sup> 다음에 서시와 9곡에 대하여 각각 이이순 자신의 칠언율시를 이황의 시에 차운하면서 앞의 지명의 위치에서 방향과 거리를 밝혔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본래 시가 이황의 시에서 인용하거나 주희의 무이구곡도발에서 취지를 聯句나 산문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서시와 구곡의 명소 이름과 시와 거리와 방향, 이황의 저술의 근거를 읊기면 다음과 같다.<sup>13)</sup>

(序詩) 峯巖陶山出自靈。源源洛水來過清。並山沿水尋遺跡。逐曲重賡一櫂聲。

陶山記曰。靈芝之一支。東出而爲陶山。又曰。洛川來過清涼。

① 右雲巖 豁豁一曲僅容船。上有高菴類大川。悵望諸賢討論處。至今遺跡濕雲烟  
雲巖在陶山南十五里。卽一境水口也。

先生與後彫，挹清，雪月，日休，勉進，月川諸公。遊雲巖寺。詩有論易討文之句。

② 右鼻巖 二曲巖如鼻起峯。宣城得此以爲容。更憐斜日開圖畫。點點螺鬟翠幾重。  
鼻巖在雲巖北五里宣城邑鎮西。

先生詩曰。斜陽相送處。畫裏過宣城。

③ 右月川 三曲亭亭藕似船。芙蓉秀出百千年。江山第一今無主。月白空堂更可憐。  
月川在鼻巖東八九里芙蓉峯下。

11) 『三淵集』 권14, 詩葛驛雜詠其五十六 ‘靜聽松風倚北山。卧成高致邈難攀。賢兒往乞陶山誌。三請冥鴻一句刪’

12) 『後溪集』 권1, 詩 遊陶山九曲。敬次武夷櫂歌韻 十首。○並序。(前略)而又有能修述陶山誌。以載九曲形勝。而與武夷誌前後匹美。則尤豈非茲山之幸也耶。余以是深有望焉爾。

13) 『後溪集』 권 1, 詩 遊陶山九曲敬次武夷櫂歌韻 十首。○並序 아래의 서시와 끝에 있던 글자의 위치를 바꾸어 정리한 결과이다.

先生稱爲江山第一。次芙蓉諸作詩曰。溪堂月白川堂白。

- ④ 右汾川 我從四曲訪龔巖。巖古臺空碧草甍。仙伯風流山仰地。一聲漁父月盈潭。  
汾川在月川西北五里許。龔巖先生亭館在焉。龔巖晚退。使侍兒。歌漁父辭。  
先生詩稱龔巖爲老仙伯。

- ⑤ 右濯纓 五曲移舟潭水深。坐看殘月繞烟林。通泉百歲輟微響。更有何人知此心。  
濯纓潭在汾川東二里許。陶山書堂在其上。烟林二十六處之一。  
先生濯纓潭泛月詩曰。不知百世通泉後。更有何人續正聲。

- ⑥ 右川沙 六曲虹流玉作灣。翠屏紫塢合成關。回瞻古寺荒臺上。山月祇今照等閒。  
川沙在濯纓東四五里東翠屏西紫霞塢。川上有七臺。臺上有月瀾菴。  
先生川沙曲詩曰。玉虹抱村斜。寓月瀾詩曰。自憐山月映孤衾。

- ⑦ 右丹砂 七曲瑤屏繞玉灘。雲生花發畫圖看。煉丹秘訣從何問。仙去千秋古鼎寒。  
丹砂在川沙北二三里。  
先生丹砂曲詩曰。青壁欲生雲。綠水如入畫。又曰。花發桃源界。  
又曰。中藏萬斛沙。秘寶天所戒。

- ⑧ 右孤山 最奇八曲得天開。鶴棹孤舟爲泝洄。壁上題詩今在否。雲山悵望獨吟來。  
孤山在丹砂北七八里。有惺齋精舍。  
先生書孤山石壁詩曰。日洞主人琴氏子。隔水呼問今在否。

- ⑨ 右清涼 九曲山深更卓然。仙峯六六影流川。如三十六洞天在。此亦當爲第一天。  
清涼在孤山北五六里。  
先生武夷九曲圖跋曰。三十六洞天無則已。有則武夷當爲之第一。六六峯。  
卽十二峯之謂也。然六六與三十六無異。則今以六六峯。爲三十六洞天之第一。  
亦可謂不偶也。未知武夷九曲之中。亦有第一奇絕。如清涼者否也。

이이순은 이수연과 달리 자신의 주장을 내비친 개성이 강한 이황의 후손이었다. 후계란 퇴계를 계승하였다는 선언이었지만 이수연이 이루지 못한 몇 가지 중요한 업무를 남겼다. 이이순은 이황의 후광을 활용하였고 활동범위가 넓었다. 그는 무엇보다 『도산지』를 보충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이를 증보하여 간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를 자신의 문집인 『후계집』에 남겼다. 이수연은 자신의 저술이란 표현을 어디서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이순은 『도산지』의 전체를 보충할 부분을 문집에 남겼을 정도였다.

이이순은 『도산지』를 따르지 않고 도산구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도산지』를 보충하였으므로 도산기나 『도산지』를 벗어난 도산구곡을 지명으로 확정한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고 하겠다. 또한 『도산지』를 보충한 부분의 서문에 해당하는 병서와 핵심인 10수의 시에 의하면 『도산지』의 체계를 벗어났다. 이황이 구상한 도산기인 도산잡영병서와 다른 도산9곡을 설정한 내용은 이이순에 앞선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황은 생전에 어느 글에도 주희가 노래한 무이구곡에 비견할 도산구곡을 확정한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황이 이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가 지은 도산기는 도산에 가까이 있는 몇 개의 계곡과 중요한 지점이나 이미 있었거나 그가 이룩한 시설물의 이름이 들어 있지만 어디에도 확정된 9곡 전체의 서술을 남기지 않았다. 『도산지』는 도산기를 계승한다는 취지는 강하였지만 이수연이 자신의 저술로 간주하였던 경향이 약하므로 도산기를 보충한 체계를 구사하여 이황의 시를 구곡의 공간에 설정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하겠다. 다만 이이순은 도산구곡가를 10수의 시로 보충하면서 분명하게 『도산지』를 보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sup>14)</sup>

이황의 후손은 이황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지명을 고수하고 이를 세거지로 삼고 호로 사용하기를 영광으로 삼았다. 이이순은 도산을 기점으로 서시를 쓰고 15리 남쪽의 운암을 제1곡으로 도산으로 향하여 거슬러 비암, 월천, 분천, 도산서당, 탁암담, 천사, 단사, 고산, 청량산으로 전개된 방향과 거리가 대체로 도산과 운암을 남북으로 축을 삼은 낙천에서 강을 따라 동으로 다시 북으로 전개된 9곡의 명소를 설정하였다. 그는 주희가 무이구곡을 재현하였던 수효를 지켰다. 이 부분은 이황이 읊었던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7대3곡보다 서에서 동으로 확대된 공간이었다. 이이순은 이황이 늦여름의 보름달밤에 배를 띄웠듯이 따랐고, 주희의 무이구곡과 상통하도록 도산구곡을 확정하였다. 이는 곧 이황의 활동공간을 낙동강 상류에서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전개하였다. 무이

14) 『後溪集』 권 1, 詩 遊陶山九曲. 敬次武夷櫂歌韻 十首. ○並序. “(앞부분 생략)而又有能修述陶山誌. 以載九曲形勝. 而與武夷誌前後匹美. 則尤豈非茲山之幸也耶. 余以是深有望焉爾”.

산과 일치시켜 자연과 동화하면서 修己를 목표로 大人儒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겠다.<sup>15)</sup>

『도산지』는 이황이 거주의 공간으로 자리한 양진암과 교육의 공간인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가까운 7대와 삼곡에 대한 공간이 중심이었다. 국왕인 명종이 도산을 중심으로 구곡을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화원을 보내면서 이황은 그에 부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황은 후손 이이 순과는 달리 오로지 자연에 과묵히 주자학에서 수기의 수양에만 몰두하는 자세를 벗어나지 않으려 활동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황의 9세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도산구곡을 확정하여 도산기와 『도산지』를 보충한 저술이 가능한 확대시킨 기반을 갖추었다고 짐작된다.

### Ⅲ. 『청량지』의 서술 공간과 특성

이황의 8세손 이세택은 청량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이황과 제자가 답사한 詩文을 모아서 먼저 『淸涼志』를 완성하였다. 도산은 안동부의 중심지에서 동쪽 끝에 가깝고 청량산은 도산이 인접한 봉화군의 남쪽에 속하면서 도산의 동북과 이웃하였다. 청량산은 오늘날 도립공원으로 지자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청량지』는 청량산의 입산하는 위치에 있는 청량박물관에서 번역하고 원본을 뒤에 붙여 출간하여 관광과 연구의 자료로 간편하게 쓰이며 품격이 높다.<sup>16)</sup>

15) 이황의 철학에서 남송 주희가 강조한 수기의 성리학을 북송의 성리학자가 내세운 치인의 가치보다 근본을 삼은 대유로 강조한 특징이 있다. 은자의 수기를 강조한 대유론은 공자의 어록인 『論語』에서 비롯되었다. 『退溪集』 권 42, 記 易東書院記 “孔子謂子夏曰。汝爲君子儒。無爲小人儒。君子儒爲己。前之所稱是也。小人儒爲人。後之所云是也。以子夏之賢。聖人猶發此戒。餘人當何如哉。故孟子曰。術不可不慎也。凡我入院之士。欲爲君子儒乎。欲爲小人儒乎。於是而能知其所擇。則其庶乎可免矣。名既定。諸君又責澁以記文。澁雖老且病。爲鄉人而獲觀盛事。不欲其苟辭。略道梗槩如此。其他則趙君之錄詳之矣。隆慶二年戊辰孟夏既望。眞城李滉記。

16) 청량산박물관, 『淸涼誌』 청량산박물관 연구총서 4, 2012.

이세택이 1771년 그믐을 3일 남긴 연말에 쓴 서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같은 해 초여름에 도산서원 회의에서 문중의 후배들과 청량산을 답사하고 사원의 승을 만났다. 문헌을 찾았으나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스스로 청량산에 관한 선현의 시문을 모았다. 자료를 갖추고서 明의 楊恒叔이 지은 武夷志에서 주자를 중심으로 저술한 체계를 따라서 이황의 시문을 중심으로 『淸涼志』를 저술하였다고 한다. 『淸涼志』에는 이세택의 서문과 李級의 발문에도 5일간 청량산의 절에서 자료를 모았고 반년을 남짓한 기간에 완성하였다고 밝혔다. 이황 후손이 술선하여 문중의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문을 쓴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같은 해 말에 완성되었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이 산지의 서문과 발문에서 『淸涼志』라고 썼음이 확실하다.<sup>17)</sup> 본래 詩文이란 머무는 시간이 길었던 생활공간보다 과거에 대한 추억이나 미래에 대한 설계를 위하여 자주 찾는 답사의 대상일 경우에 오히려 시문으로 짓고 분량이 많다. 이황은 초반기에도 청량산을 간혹 찾았으나 만년의 10년간 주로 도산에 머물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심신을 휴식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청량산을 자주 찾으면서 제반사를 논의하고 詩作을 힘썼다고 한다. 서문과 발문에서 吾家山이라 불렀을 정도로 이에 대한 이황의 애착을 강조하였다. 이세택은 『무이지』나 용수사 주지의 吾山이란 표현보다 문중의 산이란 의미로 변화되었음이 확실하다.

청량산은 도산서당에서 동쪽에 이웃하였고 낙동강의 상류가 태백산의 황지에서 기원하여 도산면의 동쪽에 이르면 남쪽으로 흘러 봉화의 남서쪽에 속한다. 이곳의 중부에서 남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거슬러 북쪽으로 오르는 도로를 오늘날 청량로라 불린다. 이 도로는 실제로 봉화군 명호면 청량산 11봉의 물이 모이고 안동시 예안면 祝融峯과의 사이를 동에서 서로 흐르는 시내가 있다. 시내를 따라 동쪽 상류로 계곡을 따라 완

17) 청량산박물관에서 번역하고 자료를 복사 붙여서 간행한 자료에서 『淸涼誌』라 하였으나 실제의 書題와 다르다. 후에 삼산지를 종합하여 간행한 『오가산지』의 부제와 1963년 『淸涼志』에 절반 가량까지 한글로 토를 붙이고 증보하여 만든 사본에서 『淸涼誌』라 하였다. 이 글에서는 『淸涼志』만 언급하고자 한다.

만하게 자동차길인 청량로가 계속되며 청량산의 서쪽과 남쪽으로 꺾여 서 서쪽의 경계로 이어진다.

이름 없는 이 시내야 말로 봉화군 명호면 청량산 11봉의 남쪽 물과 남쪽 안동시 예안면 1봉인 축융봉의 북쪽 물을 합쳐 청량산 12봉의 물이 모두 모여 낙동강에 이르면 여름에는 나룻배가 필요한 강을 이루었다. 도산구곡은 여름의 우기를 지나야 가을까지 수량이 풍부하여 배를 띄우고 분강에서 청량산 12봉의 물이 합친 지점까지 거슬러 물길로 운행이 가능하였다. 도산구곡의 기점과 『용산에서 도산과 청량산 12봉의 물이 합친 지점까지라는 중점의 범위를 이이순이 확정하였다. 이세택은 청량지』와 『용산지』에서 도산구곡을 확정한 근거가 없다. 비가 적은 시기에는 배 없이 건너므로 낙천이나 분천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12봉의 청량산은 오랜 기간 水山으로 불린 듯하다. 청량산도 최고봉이 900미터를 넘지 못하지만 대체로 800미터 이상의 여러 봉우리의 높이가 고르고 실제로 수성암이 층을 이루면서 물이 많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여름에는 온화할 정도로 온도를 조절하는 특성이 있다.

1771년 착수한 『청량지』는 이황의 사후 200년 후에 해당하고 신속하게 완성되었다. 이를 지었던 시기는 영조가 도산구곡도를 그려 올리라는 지시와 상통하는 듯하다. 『청량지』는 이세택이 연장자로서 관심을 기울여 이황의 다른 후손들과 협력하여 단기간에 이루었다. 본래 청량산은 봉우리 높은 곳 가까이까지 물이 풍부하여 여러 寺庵이 건립되었고 이미 신라의 김생과 최치원의 유적이 있었다. 원제국의 말기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공민왕은 안동에 몽진하여 최후의 보루로 낙동강 남쪽의 축융봉 아래에 산성을 수축하고 대비하였다. 경주에서 태자리를 거쳐 신라리와 조령까지 연결된 곳곳에는 사원과 산성의 흔적이 많고 신라와 고려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청량지』에는 서문에 이어서 서술한 원칙을 범례로 설정하였다. 이 책에 주세붕과 이우가 남긴 시문이 많았다. 이황과 제자와 후손이 자주 찾아서 시문을 남겼으므로 『청량지』의 내용은 풍부하였다. 신라에서 건립한 사원의 창건에 대해서는 신화에 가까운 설화가 많았다. 청량산의 寺

庵에서 승들은 황당할 정도의 설화를 전하므로 이를 수록하기를 꺼렸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주세붕은 산봉우리의 이름조차 새롭게 고쳐서 청량산을 답사한 기록을 남겼을 정도였다. 성리학으로 새롭게 무장한 이황에 의하여 비판의 기준은 주희의 『무이지』를 모형으로 삼았듯이 모든 저술에서 새로운 사상의 기준으로 등장시켰다.

범례란 주희를 기준으로 삼은 이황의 의지를 담아 확정된 사료를 따라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시대의 고승에 의하여 정리된 자료는 비판적으로 깎아내고 줄여야 할 대상이었다. 범례는 이를 거친 자료는 다시 편집하는 기준이 되었다. 기준에 맞는 자료는 다음 순서로 정리되었다.

〈표 1〉 『청량지』의 구성

항목	세목	작자 또는 내용	면의 시작과 끝
청량지서	序	이세택 신묘 (1771년)단양 전 삼일	1—2
	後序	이만철 임신(1872년) 겨울	2—4
청량지	凡例	5항목	5—6
내용	山川	산과 내의 이름과 자연	7—15
	寺庵	사원과 암자	15—17
	山中古蹟	유적과 유물	17—19
	先賢遺蹟	이우를 비롯한 이황 이외의 시	19—21
	紀題	시문의 제목과 전문	22—95
淸涼山志	跋	李紱, 서와 내용은 상통함	96—98

이상과 같이 앞에는 서와 후서 그리고 범례를 붙이고 5항으로 내용을 서술한 다음 끝에 발문을 붙였다. 서와 발에는 1771년 이세택이 도산서원의 임원인 자신을 비롯한 이황 후손을 중심으로 신숙하게 『청량지』를 완성한 과정을 밝혔다. 李晩轍이 1872년 쓴 후서에 의하면 원본의 서문이 없어지고 끝부분도 글자가 몽개져서 도산서원 서고에서 이본을 이용하여 복원하였다고 밝혔다. 비록 충분히 보충하였지만 원본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 IV. 미완성 초고 『용산지』의 내용

용산은 龍頭山(664m)과 龍壽寺를 합치고 줄인 이름이다. 용두산의 중턱에 용수사가 있었고 그 아래로 골짜기와 시내를 이루며 양지쪽에 마을의 높은 곳은 운곡리 다음의 남쪽으로 온계리(지금 溫惠里)와 서남으로 汾川리가 핵심이며 행정구역으로는 안동시 도산면에 속하는 낮은 산이 많은 마을이다. 온계는 본래 시내의 이름이지만 이황이 태어나고 자라고 급제하여 출사하기까지 기반이 되었던 보금자리였다.

용수사는 고려 중기에 개창하였고 조선후기에도 여러 차례 화재와 훼손으로 중창을 거듭하였으며 1896년 건물이 불타고 폐사되었으나 1991년부터 6년간 복원하여 100년간 중단된 전통을 회복하였다. 시내가 마을을 지나 서로 연결하고 산줄기를 가로질러 고개가 있었다. 도산면의 낙동강<sup>18)</sup> 기슭을 이룬 구비마다 여러 모양의 바위와 물굽이, 고개와 쉼터를 지나면 청량산에 이른다. 쉼터에는 우물과 壇壝가 생기고 고목과 정자가 있었다. 지형이 복잡할수록 난리에도 살아남기에 알맞았고 인간의 씨가 마르지 않았다.

용두산은 안동시청의 동쪽에 위치하였고 더 멀리 봉화의 끝자락에 만리산(792m)이 있고 그 남쪽에 있는 靈芝山(443m)을 돌아 온계가 동쪽으로 감싸고 토끼 궁둥이처럼 동쪽으로 휘돌아 兔溪라 불렸다. 도산서원에서 서북에 위치한 용수사는 선비들이 독서와 한성으로 나들이하면서 배웅하거나 맞이하는 오리정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용수사는 용두산의 능선이 어미닭처럼 품어주는 온계의 북쪽 산중턱인 운곡에 위치하였다. 이황은<sup>19)</sup> 만년에 이르러 도산을 자신의 거주와 교육의 장소로 가꾸고

- 
- 18) 이황은 그의 도산잡영에서 부근의 낙동강을 洛川으로 표현하였다. 도랑(溝)이 모여 깊이 파이면 시내(溪)라하고 시내가 평야에 이르러 곧게 흐르면 시내(川)가 되고 내가 모여 강을 이룬다. 뛰어서 건널 수 있는 작은 물길을 도랑(溝)이라 부르고, 배로 건너면 강이고 배 없이 옷을 건고 건너면 시내(川)지만 장마철에는 짧은 기간 시내도 강을 이루기도 한다. 분강과 낙천처럼 건기에는 汾川이라 이름이 변하였다고 추정된다.
- 19) 필자는 고려시대의 인물을 서술하면서 號보다 이름을 썼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대한 글을 쓰면서 호와 이름과 생존연대를 밝히고 다음부터 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요람과 같았던 용산보다 동쪽의 청량산(870m)을 자주 찾아 단련하고 시를 지었다.

이황의 숙부 松齋 李隅(1469-1517)는 스승으로 그에게 감화를 주었다. 분천에 세거한 龔巖 李賢輔(1467-1555)는 관직으로도 거목과 같았고 선대의 묘소도 이곳에 있었다. 낙동강 하류의 漆原에서 성장한 愼齋 周世鵬(1495-1554)<sup>20)</sup>은 과거응시와 벼슬살이로 용수사를 지냈고『遊淸涼山錄』도 지었다. 그는 독서와 관직으로 지친 이황에게 자연에 묻혀 쉬기를 알려준 대선배였다. 이황은 이웃한 도산과 동쪽의 청량산의 자연을 아끼고 건강을 돌보면서 여러 골짜기에서 배출된 제자와 함께 이후 경상좌도의 학문과 교육의 새로운 중심지로 가꾸었다.

『龍山志』는 이황의 8세손 釣隱 李世澤(1716-1777)이 지었고 그는 『용산지』를 착수하기 4년 앞서 1771년 『淸涼志』를 주관하여 완성하였다. 『청량지』는 이미 많은 자료를 앞서 이황의 후손이 그의 제자의 후손이 자료를 모았고 이를 주관한 이세택은 급제하고 벼슬도 높았으며 조상인 이황을 흠모하고 그를 본받았던 인물이었다. 이세택은 청량산지인 『淸涼志』를<sup>21)</sup> 먼저 단기간에 완성하고 4년 후 용수사를 찾아 『용산지』의 저술을 타진하였다. 다음은 『용산지』의 내용을 순서대로 일별하면서 이세택이 주력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려고 제시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용산지』는 같은 저자가 앞서 완성한 『청량지』의 영향이 컸고, 만년에 해당되었다. 실제로 이 산지는 미완성에 가까운 아쉬운 부분도 있다. 도산은 온계가 휘돌아 감싸 흐르는 용산의 동쪽에 위치하므로 『용산

생존 당시의 관습으로는 가까운 친구끼리 字를 썼고 호는 제자나 후배나 후손이 사 용하였다. 호는 지명과 같은 사례가 많고 거주지와 나이의 변화에 따라 자주 달라진 사례가 많으므로 이름을 쓰겠다.

20) 자는 景遊, 호는 愼齋, 1522년 문과에 급제한 다음 홍문관과 성균관 등 교육기관에 역임하였다. 1544년 풍기군수로 宿水寺址에 白雲洞書院을 세우고 같은 해에 淸涼山을 유람하고 紀行文을 남겼다. 최종관직은 知中樞府事에 올랐다.

21) 『청량지』의 서문에 의하면 이세택은 『淸涼志』라 썼으나 후손들이 더욱 보충하고 가필한 다음 『淸涼誌』라 書簽을 고쳤다고 추정된다. 이점은 앞으로 『청량지』의 여러 사본을 대조하고 미세한 차이를 밝히면서 반드시 언급될 필요가 있다.

지』와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으나 『도산지』를 의식하여 제외하고 썼으므로 분량이 적어졌다고 짐작된다.

『용산지』는 『청량지』처럼 『武夷志』를 모형으로 삼아 불교에서 성리학의 심화와 관련되었다. 조선시대의 학문은 성리학이 심화의 대상이고 북송의 治人을 강조한 성리학보다 주희의 修己를 학문의 주된 토대로 삼았다. 『용산지』도 여기에 살을 붙인 명대의 『무이지』를 본받은 특성이 있다. 이세택과 그의 조부인 이수연과 후손인 李晩興의 노력으로 풍부한 산지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충할 부분도 있다. 용산에 관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용수사 주지가 보여준 고려의 崔誼이지는 『龍壽寺開棚記』였다.

『龍山志』는 닥나무로 만든 전통의 韓紙에 쓴 사본이고, 가로 31cm, 세로 39cm이다. 이 책은 용두산 용수사를 중심으로 자연과 寺庵, 1996년 중창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에 구하였고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추정하고 보관하여 왔고 제공한 분의 이름이나 내용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본래 소장자도 실진되었다고 한다.<sup>22)</sup> 이 책의 표지는 지질도 본문과 다르고 書籤의 글씨체도 본문과 다르다. 겹장을 열면 첫머리에 匡廬志라고 책이름을 붙였으므로 차이가 있으며 다음에 서문이 있다. 표지를 제외하면 본문은 13장 26면이다. 이 책은 1면 10행이고 행마다 20자로 200자 원고지와 같다. 행간은 없으나 가로와 세로를 대체로 맞추어 정갈한 楷書로 썼다. 책의 끝에 이룰수록 달필의 행서로 바뀌는 글자는 있지만 같은 필치이므로 읽기에 편하다. 다만 爲乃 千 方 然 數 所 등은 점차 행서로 바뀌므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책을 지은 이세택은 직접 서문을 또박또박 해서로 쓰고 본문의 끝까지 같은 필치로 점차 행서를 섞으면서 달필로 써내려간 그대로이다. 서문을 요약하여 보면 갑오년(1775) 여름에 종중의 대여섯 분과 십리도 못되는 거리에 있는 용수사를 찾았다. 주지 性森이 “여러분께서 앞서 청량산지를 지었다는데 나의 산(吾山)에 대해서는 (산지를 지을)뜻이 없느

22) 願行스님으로부터 직접 구술을 확인하고 옮겼다.

냐?”고 요청하였고 “절에 기록할 만한 옛 자취가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이세택과 일행은 주지로부터 “고려의 崔誨이 지은 비문만 있고 다른 글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자료를 찾아서 보충할 시를 약간 모으고 지리지에서 몇 가지를 더하여 간단하게 목차를 나누고 이름을 ‘匡廬志’라 붙였다. 아니면 龍山이라 하겠으나 광려라 쓴 까닭은 廬山에 匡氏가 살았고 용산에 이씨가 살면서 남긴 발자취라는 의미를 나타냈다. 그래서 이를 이어서 더욱 모으고 마침내 완성시키면 『龍山誌』라 불러도 좋겠다. 眞城 李世澤이 삼가 쓴다.”<sup>23)</sup> 서문을 남겼다.

이세택은 이황의 8세손이었다. 저자는 용수사 주지 성삼이 준 최선이 짓고 글씨를 쓴 용수사개창기와 부근에 살던 함께 찾아가 문중의 여러 분이 도와준 선대의 시문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뽑은 내용을 모아서 소략한 『용산지』를 만들고 이름도 匡廬志라고 불렀으나 이를 더욱 보충하여 완성시키면 『龍山志』라고 불러도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를 보면 책의 표지에 ‘龍山誌’란 書簽은 본문의 필치와도 차이가 있으므로 후인이 만들어 붙였다고 짐작된다.

이세택은 광려지라 하였고 『용산지』라 쓰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그가 지은 『淸涼志』에서도<sup>24)</sup> 주희가 활동한 무이산을 중심으로 후대에 완성된 『武夷志』를 모범으로 삼았고 만족할 만큼 보충된 다음에 서명을 바꾸려하였다. 이로 보면 이세택은 『龍山志』를 초고의 그대로 남겼으므로 광려지인 셈이지만 후대에 표지를 붙이고 서첨에만 『龍山誌』라 고쳐 불

23) 匡廬誌“曰有前朝崔學士所撰碑在 他無文籍藏棄者 余乃憑然於諸人曰 噫此吾儕責也 遂相與攷出先世遺稿詩 什若干數 既又採得勝覽中數條 略其篇目名曰匡廬誌 不曰龍山而曰匡廬者 誌所載皆吾李先蹟 故此匡山 以著茲山之有故於吾家也 雖然幸有繼此 益加裒梓卒成完書 則改稱爲龍山誌 亦可也 眞城李世澤謹書”

24) 이세택은 『용산지』의 초고를 『匡廬誌』라 썼듯이 『淸涼志』의 초고를 『武夷志』라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淸涼志』의 서문에서 『무이지』를 보충하고 나서 이를 옮기면서 ‘淸涼志’라 썼다고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그가 남긴 원본을 추가하여 ‘淸涼志’라 책이름을 구분하였다고 짐작된다. 앞으로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대로 龍山志와 淸涼志로 쓰도록 하겠다.

였을 뿐 실제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보충한 흔적이 전혀 없다.<sup>25)</sup> 앞으로 그의 만년 친필을 찾아서 필체와 지질을 살피고 초고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문 13장 26면의 첫머리에 실린 광러지는 『龍山志』의 초고라는 뜻이었다. 『淸涼志』를 완성한 1771년보다 4년 늦게 1775년 초여름에 저자가 서거하기 2년 전에 착수하였다. 필치는 시종 같지만 필체의 끝이 가늘어지면서 말아 감겨지는 느낌이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쓰기를 마쳤고 정성을 다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로 보면 이번 소개한 『용산지』는 이세택이 건강이 악화된 다음에 완성되었고 표지를 제외하고 전혀 가필이 없는 초고의 친필이고 실제로는 문중의 여러분으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만족할 정도가 아니었다. 『용산지』도 온계에 살고 있던 같은 문중이 도와주기를 기대하였지만 실제로 이세택이 모든 자료를 편집하고 초고의 서문을 지었음이 확인된다.

이황의 선배인 愼齋 周世鵬(1495-1554)이 최초로 遊淸涼山記를 완성한 시기는 1544년 4월 19일이었다. 이황은 이보다 앞서 1528년 청량산을 답사하였고 그 가운데 白雲庵記를 지었고 이를 주세붕이 기억하고 인용하였다. 이세택이 청량산지의 저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황과 주세붕이 청량산을 답사하고 남긴 시문에서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황은 풍기군수로 취임하였던 1549년 봄에 주세붕의 遊淸涼山記를 처음 읽었고 내용에 감탄하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후 한성에서 주세붕이 직접 이황을 찾아 절반 가까이 분량이 많이 보충하고 고친 글을 건네주었다. 이황은 보충된 내용에 더욱 감동하여 1552년 9월 8일 발문을 썼다. 이로 보면 청량산에 대한 관심은 서로 격려하면서 고조되었음이 확실하다. 물론 이보다 앞서 이황의 스승이며 숙부인 松齋 李堦와<sup>26)</sup>

25) 다만 여러 부분에 글자를 도려내고 부분을 붙여서 고친 부분이 있다. 이는 저자가 쓰고 부득이 고친 글자이고 후대에 이러한 수정작업을 하였다는 서체의 변화나 지질의 차이를 지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자는 저자가 스스로 고쳤다고 간주하였다.

26) 李堦의 자는 明仲, 호는 松齋, 이황의 숙부이다. 1515년 안동부사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고 당상관에 올랐다. 시에 탁월하였고 『松齋集』이 있다.

형인 溫溪 李瀧 등이 청량산을 찾았던 시도 남아 있다.

필자는 2018년 9월 5일 용수사를 찾아 『용산지』를 소장한 원행 스님으로부터 책을 소장한 경위를 다시 확인하였다. 다음날 안동국학진흥원을 찾아 『용산지』를 직접 살펴보고 용수사로 돌아와 용수사개창기가 있었던 위치와 비편의 현존여부와 13층 청석탑의 위치를 보았으나 옛 사진에서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용수사를 복원하면서 출토된 청동반자와 수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책은 표지의 書籤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필치이다. 초고 그대로 보존되었으므로 아무런 가필이 없어서 오히려 보기 드문 원형의 사본이었다. 이를 공개하지 않고 깊이 간직하여 보존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체의 구성을 살피기 위하여 표지를 제외하고 책의 본문 13장 26면을 순서대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용산지』의 구성과 항목

항목	세부항목	분량 (부터-까지)
李世澤 序 山川	(1775년 초여름에 근처에 사는 문중 몇 분과 착수) 龍頭山, 大王薨, 龍門橋, 祈雨壇, 道谷, 雲谷, 溫溪, 淸吟石, 新巖瀑布	1-3 3-7
寺刹 紀題.	龍壽寺, 靈隱菴, 白雲菴, 西菴, 西菴 退溪與孫安道詩小序, 退溪三兄四兄松齋寄詩小序, 退溪寄 詩安道詩二首, 松齋詩 丁卯六月退溪早發龍壽寺遇雨詩, 退溪寓龍壽寺龔巖寄桃酬 唱和韻, 退溪自榮川來寓龍壽寺贈吳守盈詩 退溪題龍壽寺詩, 溫溪與退溪及諸人會龍壽寺翫月聯句七十 三韻, 乙巳孟夏二十五日退溪入龍壽寺寄黃敬甫 隆慶丁卯退溪往龍壽寺答奇明彥書, 退溪逢廣興寺僧仁祐書贈仁祐得詩前于泰淳傳守諸名僧不能 盡錄	7-10 10-16
先賢遺蹟	吳春塘金雪月堂 題名龍壽寺法堂東壁	16-17
古蹟	崔詵碑文, 浮圖, 沙彌臺, 靑石塔, 禪師號念牌	17-26

『용산지』의 서술순서와 항목의 분류는 앞서 완성된 『청량지』의 큰 제목과 상통한다. 『청량지』는 山川, 寺庵, 山中古蹟, 記題의 네 항목이고, 『용산지』는 사암 대신 사찰로 거의 같고 산중고적을 맨 끝으로 돌려 先賢遺蹟과 古蹟의 두 항목으로 나누어 다섯 항목이다. 산천은 자연환경에 해당하고, 산과 내를 중심으로 더욱 세분하여 산과 바위 다리와 제단, 계곡과 폭포 등이다. 『청량지』는 산천을 세분한 목록이 아주 많고 특히 산봉우리와 窟과 臺, 風穴과 샘과 연못, 盤松과 모래벌도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이에 비하면 『용산지』의 산천에 실린 항목의 수효가 적고 구분도 단순하다. 용두산에도 여러 봉우리와 바위와 절벽과 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이름이나 이미 있었던 기록이나 새로 부여한 이름을 밝힌 내용이 적다.

사찰과 記題도 항목의 수효가 『청량지』보다 적고 구분도 단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先賢事蹟과 古蹟의 두 가지는 『청량지』의 중간에 위치한 산중고적을 나눈 셈인데 위치가 다르게 끝에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이가 있는 항목이다. 선현사적은 『청량지』의 기제와 상통하는 요소도 있다. 기제는 이황이 자연에 대해서 쓴 시에 다른 분의 시의 운을 따라 남긴 시이고 선현사적은 이황과의 관계에서 다른 분이 이황에 대하여 남긴 시가 전하는 사례이다. 『청량지』에는 기제라는 항목에서 청량산과 관계된 이황이 쓴 시는 물론 다른 분이 청량산에 대해 지은 시와 서로 次韻한 시도 구분하지 않고 시대 순서로 수록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선현유적을 시제에 합쳤다.

이 자료보다 탁본을 잘라 붙인 법첩이 일본 天理大學에 보관된 今西龍文庫에 탁본으로 전하며 거의 전문이 포함되었고, 판독에 도움될 10여 글자가 확인되었다. 최선이 짓고 쓴 비문의 다음에 용수사에 있던 浮圖와 沙彌臺와 靑石塔, 그리고 임진왜란 중에 이곳에 왔던 四溟堂 惟政의 친필 禪師號令牌가 목각으로 용수사에 보관되었음을 수록하였다. 용수사의 屬庵과 그곳에 있었던 유물에 대한 기록은 청량산의 사암보다 극히 적다. 저자의 만년에 건강이 악화되어 보충을 거치지 못한 미완성의 초고인 소략한 내용이다. 『청량지』는 자료를 모으고 착수한 회의를

끝내고 단기간에 완성하였으나 『용산지』의 저술은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시기부터이고 편집은 후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세택은 용수사와 온계에 관한 자료를 모아 합쳤다. 『용산지』는 『청량지』보다 분량이 적고 후대의 보충한 근거가 없다. 『용산지』에는 서문은 있으나 범례는 없다. 이로 보면 『용산지』는 『청량지』의 범례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이를 생략하였다고 짐작된다.

『용산지』에서 서술한 용수사는 고려 최선이 쓴 비문의 전부가 실렸을 정도이고 안동의 서북에 있던 廣興寺는 조선후기에도 사세가 더욱 확장되면서 고승의 계승자가 진영으로 지금도 남았다. 또한 왕실의 후원이 계속된 흔적이 많을 정도이고 그곳의 고승과 관련된 기록에 대하여 간단하게 『용산지』에 실었다. 오늘날까지 광흥사는 단절 없이 사세가 유지되고 수많은 유물이 나타날 정도로 안동에서 후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때문에 성리학의 전성기에도 사림이 관심을 기울여 자료를 모으기에 오히려 장애가 되기 때문에 『청량지』보다 충실한 정리가 어려웠다는 역설도 가능하다.

『용산지』와 『청량지』의 가장 큰 차이는 공간에 대한 배려이다. 『용산지』는 가장 북쪽의 용두산과 그보다 남쪽으로 용수사와 온계를 지나 낙동강의 일부분 분강에 이르는 일대를 포용하였다. 동으로 도산과 봉화의 남쪽 청량산과 이웃하였다. 봉화에서 도산으로 편입된 시기가 늦은 지역일수록 도산기와 『용산지』는 소략하고 오히려 『청량지』에서 간략하게 서술된 부분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태자리이다. 도산은 이황의 도산기와 후손의 『도산지』가 있으므로 이세택은 이를 『청량지』와 『용산지』 저술의 모형으로 삼아 자료를 찾아 모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도산이란 온계가 동쪽으로 휘돌아 물이 적은 시기의 낙동강 상류 이름인 낙천에 이르렀던 지역이므로 『청량지』와 『용산지』보다 좁은 동쪽 일부 지역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산은 도산서당에서 이황의 사후 5년 지나 도산서원으로 사액된 지역이므로 이황을 추념한 핵심이었다. 앞서 이수연이 『도산지』를 짓고 이세택이 『청량지』를 완성한 다음에 4년 지나 서야 착수한 『용산지』는 『도산지』와 『청량지』에 빠진 지역에 해당하였

다. 『청량지』보다 분량은 절반도 못되는 산지이다.

『용산지』는 『청량지』와 다른 점도 있었다. 가장 큰 공통점은 불교에 대한 혐오감이다. “고려학사 최선의 비문을 읽어 보건대 임금을 속이고 불교에 빠진 행각은 바닷물을 기울여도 씻기가 어려운데 들불에 타서 부러졌으니 마땅하다 하겠다.”고 하였다.<sup>27)</sup> 그러나 실제 탁본을 원형으로 재현한 결과 들불보다 의도적인 파괴의 흔적이 뚜렷하였고 주세붕의 유청량산록에서 인용하였다고 밝혔지만 현존 원본에는 같은 내용이 전하지 않는다. 유청량산록을 처음 이황이 보았을 때보다 분량을 배로 늘려서 다시 받은 글에서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할 과제가 남았다.

용두산과 청량산은 온계와 도산서원에서 이웃한 곳이고 이황을 전후한 시기부터 여러 선비의 발길이 잦았고 시문이 많았지만 『용산지』에서 이들 시문을 제대로 정리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청량지』가 여러 차례 보충한 후대의 사본이 전하는 사실과 달리 같은 이세택이 지은 『용산지』는 저자가 쓴 그대로전하고 후에 보충하거나 추가한 부분이 전혀 없다. 그가 서문의 끝에서 “이 책을 계속하여 모으고 채워서 완전하게 책으로 만들면 (초고의 匡廬誌가 아닌) 龍山誌라 고쳐 불러도 좋겠다.”는 저자의 의견에서도 초고의 느낌이 강하다. 저자의 謙辭도 아니고 별세하기 2년 전에 주지가 제공한 용수사개창기를 제외하면 함께 용수사를 찾았던 이들의 협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본문에서 저자가 생략하였으므로 보충할 詩題나 詩가 있음을 지적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5면 7행 云云

2) 6면 3행 云云

27) 『龍山志』 8-후면 愼齋 淸涼遊山錄曰(中略) 又曰 “讀高麗學士 崔誥碑文 其欺君 妄佛之惡 傾海 難洗 宜其爲野燎所斷也.” 그러나 주세붕의 글에는 위의 글이 없다. 다만 이황의 周景遊 遊淸涼山錄後跋(17-전면)에 다음의 글과 취지가 상통하지만 차이가 크다. 矧乎山之諸峰 皆冒以竺書荒茫之語 諸佛淫昏之號 斯固爲仙區之辱 以吾輩之差也 今先生歷改 而痛湔之 其所以慰山靈 而煥精采者 爲如何哉.

- 3) 15면 5-6행 갑신년 초가을 보름 이해가 이황을 비롯한 여럿과 용수사에 모여 달구경하면서 聯句 73韻은 『溫溪逸稿』에 실렸으나 분량이 많아 생략한다.
- 4) 16면 2-5행 윤경 정묘 9월 9일 명종의 인산에 奇高峯에게 보낸 서신에 참담한 소식(명종의 승하)에 참석해야 하지만 갈 수가 없어 용수사를 찾았다(이하 云云이라 생략 표시)
- 5) 17면 1행 이어서 화답한 名僧의 詩가 많았으나 모두 기록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분명히 생략한 부분은 云云으로 표시하였고 더욱 찾아 사실을 보충한 여지가 있음직한 부분에 “라고 하더라(云)”는 전해들은 이야기를 적은 기록도 있다. 또한 자료에 내용이 더 있어야 할 용수사개창기에는 읽지 못한 글자에는 缺이라 표시하고 읽지 못한 공간을 비웠으므로 탁본을 제대로 보고 판독하여 적었다는 느낌을 준다.

『청량지』의 山川과 寺庵에는 ‘云’이라 쓰인 부분이 있으나 더욱 추가한 설명이 보충된 글이 있다. 또한 ‘云云’이라 쓰인 부분은 불교유적에 대한 서술에서 한번 쓰였고 선현고적이나 詩題에는 없으나 『용산지』에는 같은 시제를 비롯한 시문은 보충하거나 아쉬운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 있다. 이로 미루어 『청량지』는 착수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 모았던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완성하였고 완성한 다음에도 후손에 이르기까지 더욱 보충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비하여 『용산지』는 미리 자료를 충분히 모으지 못한 형편에서 편집하였고 후대에 보충하거나 저자가 별세를 앞두고 제대로 마치지 못한 초고본이라는 추정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 이세택이 별세하기 2년 전 대여섯 가까운 곳에 사는 동지들과 용수사를 답사하고 주지 性森을 만나 용수사개창기를 얻고 이 책을 착수하였으나 이를 완성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다는 설명도 없다. 이세택이 초고로 쓰고 다시 보충하지 못하였다면 그는 한 권의 미완성 『용산지』만 남기고 서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용산에서 도산과 청량산에 이르는 공간에서 조선시대에 앞선 시기 불교의 기반이 다양하게 있었음이 감지된다. 성리학의 제례와 교육장소인 향교에 선행한 불교사원이 점차 퇴락하거나 소멸되고 서원이 건립된 지역이 적지 않았다. 불교사원이 조선건국 초기부터 몰락하는 과정은 중기

에 주자의 무이산지의 지명을 바꾼 사례를 따라 고친 지명이 주세붕의 유청량산록에서도 확인된다. 墳菴이나 서당이나 산당에서 발전하여 서원이 건립되는 과정을 밝히면 확인된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면 조선 시대 연구자들이 충분히 정리하리라 예상된다.

불교에 앞서는 상고의 神殿이나 神堂이 있던 지역이 불교가 주도하면서 황폐화하는 현상을 용수사의 부근에 있던 大王薨나 절을 지은 기초를 마련하던 곳에서 앞선 시설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불교사원의 터로 서술되었더라도 蘇塗에 있던 신전일 가능성이 있다. 이곳의 산지에서 상고의 신화와 관련된 불교 이전의 신앙시설로 유추되지만 불교로 전환하는 과정에 협력한 토착신앙의 요소로 짐작되는 부분도 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大王薨(龍山誌 p.3, p.18) 용수사 앞에 있던 소도나 신전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
- 2) 安仲像(『청량지』 p.16) 불교에 협력하거나 흡수된 天官女와 상통하는 무녀의 조각. (『淸涼誌』.184)
- 3) 三角牛墓(『청량지』 p.19) 사원의 건립에 畜力이 도왔다는 설화. 28)

용산과 도산과 청량산을 포함한 지역에는 선사시대에 속하는 유적지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고인돌과 암각화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에 해당하는 각각 한 곳씩 지표조사에서도 언급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신라와 고려에서 수축한 산성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博石村(『오가산지』 p.86) 청산량 입구인데 박석이란 고인돌을 말하고 실제로 고인돌이다. 이 돌을 옮기면서 조사한 발굴보고서가 필요하다.
- 2) 영지산 예안현 북쪽 오리 작은 절이 있었고 이황은 이곳에 돌아보려 하였고

28) 『묘향이적』에는 三角三目牛로 더욱 3을 중요시한 수효로 삼족오와 상통하는 신화의 요소가 강하다.

허흥식, 『한국 신령의 고향을 찾아서』, 집문당, 2006, 70쪽.

영지산인이란 호도 사용하였다.(『오가산지』 p.89)

- 3) 鰲潭 영지산 위에 있고 이황은 1558년 우탁을 위한 역동서원 터를 논의, 1570년 7월 심경을 강의하고 8월 역동서당(후의 역동서원)의 낙성식이 있었다. (『오가산지』 p.177)
- 4) 도산면의 동쪽 청량산과 입구와 축융봉의 아래에는 산성과 궁궐터가 있었다.(『오가산지』 p.84)

산성이란 여러 왕조를 거쳐서 보수하는 특징이 있고, 이 가운데는 판축의 토성과 후대의 석성이 있고 제단이나 진지의 지휘소와 창고의 건물과 우물 등이 중요한 조사의 대상이다. 고구려와 신라는 물론 후삼국 시대와 공민왕이 몽진하였던 시기의 산성과 궁궐에 대한 전설도 수집하고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이 책은 저자의 뜻대로 보충되지 못하고 광려지란 초고에서 후대에 서첨만 『용산지』라 더하여 미완성품으로 전하였다고 보고자 한다. 광려지라는 저자의 겸허한 자세를 살리고 싶지만 이 지역의 이름을 나타낸 용어에 가까운 서첨에 따라 『용산지』를 사용하는 상황이 불가피하였다. 그렇다고 이 책의 가치를 낮추 평가하기는 어렵다. 가장 중요한 원본은 미완성이고 이를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노력의 보충이 후대에 필요하다. 그러나 첨삭을 거치면서 분량이 늘어날수록 원본의 초고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원형과는 오히려 거리가 생긴다.

이보다 먼저 착수한 『청량지』는 많은 자료와 詩文을 모은 다음 착수하였고 본래 미비하였던 부분을 보충하고 고치면서 저자의 원본은 없어지고 후대의 사본만 남았다. 완성품은 적지 않은 초고의 변형이라는 가혹한 평가도 가능하다. 『청량지』는 현존하는 5종의 사본이 전하므로 원본에 대한 검증이 오히려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청량지』는 후에 추가하거나 후대의 덧붙인 내용도 있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용산지』보다 월등 많은 분량이었다고 짐작된다. 따라서 원본을 찾아서 확인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남겼다.

『용산지』는 초고에 가까운 소량의 사본이고 유일본이므로 이에 대한 해제는 단순하지만 보충하거나 추가할 과제가 적지 않다. 원본의 가치란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 원형에 대한 이해와 이에 추가할 방향과 자료의 제시이다. 이는 원저자의 관점을 확인하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다. 책의 가치란 때로는 분량이나 완성도보다 저자의 관점을 나타낸 의도가 더욱 선명한 특징이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에 관한 기록보다 송명 성리학의 심화를 강조한 주세붕과 이황의 사상을 내세우면서도 분량이 적지 않은 용수사개창기의 전문을 수록하였으므로 『청량지』와 다른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 V. 『淸涼志』와 『淸涼誌』의 차이와 남은 과제

『淸涼志』는 여러 사본이 전하였고 본문이 98면이고 표지를 포함하면 100면이었다. 『淸涼誌』는 1901년 완성되었고 표지를 포함하여 130면으로 30면이 증가하였다. 책이름은 『吾家山誌』이고 옆에 『淸涼誌』라고 副題를 붙였으나 내용은 『淸涼志』를 취사선택하고 이후의 자료를 추가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淸涼誌』는 『淸涼志』와 서명에서 한 글자만 다르지만 유사성이 있고, 완성된 시기와 내용과 분량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산지에 대한 연구에서도 山志와 山誌는 차이를 가진다고 간주하였음이 확실하다.

志는 초고라면 誌는 이후에 미비한 부분을 추가하고 변화를 보충하여 완성하였다는 의미로 앞서 쓰인 사례가 있고 『淸涼誌』의 서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sup>29)</sup> 『오가산지』란 청량산에 있던 폐사지에 이황의 후손이 뜬 山堂이란 건물을 세우고 이를 강조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청량지』라

29) 이세택이 쓴 『청량지』의 서문에도 淸涼志이므로 용산지도 이세택은 용산지라 쓰기도 부족한 초고이므로 匡廬志라 썼고 龍山志라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후에 표지를 만들면서 내용의 변화도 없이 龍山誌라 붙였다. 淸涼誌에 대하여 청량산박물관에서 봉화군수의 발간사도 앞에 더하고 번역과 각주와 해제논문도 더하여 완성하였기 때문에 淸涼誌라는 추가한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세택은 용산지의 서문에 가까운 글에서 용수산승 性參이 뜬山이라 썼다고 전하고 자신은 오가산이라고 淸涼誌의 다른 이름으로 오가산지라 명시하였다.

불러야 산지로서 전통과 의미의 전달이 쉽다. 명산이란 누구나 이용할 자연이란 의미가 있다. 오늘날에도 대학교와 대기업의 수련장으로 변하는 사례도 있지만 자연에 대한 공용을 확대시키면서 일반에게 되돌려 널리 이용해야 한다는 개념이 필요하다.

내용에도 이 두 가지 산지는 많은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이이순이 『도산지』를 보충하려고 썼던 도산구곡의 운암에서 출발하여 청량산까지 이르는 순서를 바꾸어 청량산을 출발점으로 운암까지 이르는 뱃길로 역순으로 서술하였다. 2012년 전문을 활자화하고 아울러 번역하고 각주를 더하고 끝에 『淸涼志』에서 『淸涼誌』로 종합되는 과정을 밝힌 논문을 함께 실어서<sup>30)</sup> 이용에 간편하다. 이후에도 자연환경과 범위, 찬자와 관련된 시문과 이를 지은 사림에 대하여 일일이 찾지 않고도 알기 쉽도록 부록을 더하였다. 또한 이들 시문의 찬자와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황까지 보충한 부분도 있다. 그밖에도 이 책에 원분을 더하여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기 간편하다.

도산면과 관련된 가장 늦게 완성된 『淸涼誌』는 여러 모로 발전된 모습과 조선 말기의 지방사회가 해체되고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과제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산지의 형태에서 새로운 변화와 전통을 고수하였다는 일면도 포함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산지에 서문이 없다. 새롭게 더한 내용도 없이 책이름 하나에도 이수연이나 이세택이 중심으로 지은 산지에서 도달한 완성도를 향상시킨 부분과 앞선 세 가지 산지보다 간과하거나 체계를 바꾼 부분과 추가한 부분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체의 순서를 간단히 요약하고 설명을 더하면 다음과 같다.

30) 청량산박물관, 『국역 청량지 淸涼誌』, 청량산박물관 연구총서 4, 2012.

청량산박물관, 『국역 오가산지 吾家山誌』, 청량산박물관 연구총서 5, 2012.

&lt;표 3&gt; 『淸涼誌』의 서술순서와 문헌의 종합과 추가

목차	앞선 문헌의 이용	고치고 생략한 부분	분량
표지			1-2
[序文]		없음	
범례	모두 9항이고 설명도 매우 자세함		3-6
오가산지 권 1 詩	李滉 淸涼題詠 55篇 이항 自淸涼南麓循江至陶山歷路 34篇 이항 自淸涼西出渡江至陶山歷路諸區 18篇 이항 陶山雜詠并記 51篇 이항 十一月入淸涼山 淸涼山錄跋 附周愼齋淸涼錄 山川臺庵集解 第一 山川臺庵集解 第二 山川臺庵集解 第三 山川臺庵集解 第四	淸량산의 지명설명 고산에서 도산서원까지 도산기에서 언급한 지역 용산지에 해당하는 지역	7-29 29-41 41-52 52-75 75-86 86-88 88-92 92-94 94-96
오가산지 권2	淸涼山記 許穆 淸량산기행문 淸涼精舍創建時明堂軒記 李頤淳 吾山堂創建時上樑文 李龜星 吾山堂重建時上樑文 金養鎭 吾山堂重建記 金道和 吾家山誌後識 李晩輿 吾家山誌跋 柳必永 吾家山誌跋 李仲均 吾家山誌跋 琴鏞夏	무이정사와 일치시킴 淸량정사를 확장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오가산지의 서문과 상통 오가산지의 말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97-101 101-102 102-106 106-110 110-116 117-121 122-122 122-127 127-130

이 책은 서문이 없고 저술을 주관한 李晩輿(1861-1904)가 1901년에 後識를 남겼다. 이보다 앞서 완성된 『淸涼志』에서 이세택은 洛浦(琴聖徽 1622-1682), 龍溪(金鈴 1577-1641), 龔隱(李級 1721-1790) 등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완성했고 자신은 이를 활용하고 다시 많은 자료를 보충하여 완성하였음을 당당하게 서문으로 밝혔다. 이만여는 서문을 남기지 않았고 41세였으므로 책머리에 서문을 쓰기는 미안하였던지 後識로 남겼으나 장문이고 서문과 다름이 없다. 이 책은 사본으로 전하다가 저자보다 한 세대가 지나 아들에 의하여 1923년 간행되었다.<sup>31)</sup> 후지에 이

어 柳必永과 퇴계의 후손인 李中均, 그리고 琴鏞夏의 발문까지 도합 4건의 발문이 실린 셈이다. 형식상으로는 이황의 후손뿐 아니라 제자였던 다른 문중의 후손도 다수 포함되어 협동하여 완성하였다는 형식이 특징이다.

『청량지』를 읽은 방법은 독자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서문과 발문을 읽고 목차를 보고 책의 편제를 그리면서 내용의 순서와 목표를 살펴계 마련이다. 이 책은 서문 없이 후지와 발문이 두 가지이므로 이를 두 가지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淸涼誌』와 『吾家山誌』라는 두 가지로 출발하여 대외본인 『청량지』와 문중본인 『오가산지』로 완성하고 각각 서문과 발문을 받았다고 하겠다. 뒤에 간행하면서 이를 합쳐 모두 후지와 발문으로 끝에 싣고 서문을 없이 문중에서 간행하면서 변형이 생겼다고 짐작된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견을 종합하여 규명할 과제이다. 이 책은 범례로 시작되고 그 내용도 9항목으로서 유일하게 범례가 남아있는 『淸涼志』의 5항목보다 4항목을 더하였다. 이 역시 이름을 달리한 두 가지 산지를 합치는 과정에서 있었던 편집자의 고충이 반영되었다는 느낌이 있다.

첫째 범례에서 주희의 무이산을 중요시한 『무이지』를 계승하였음을 강조한 취지는 이황의 도산기나 이세택의 두 가지 산지와도 상통한다. 이수연의 『도산지』나 이세택의 『청량지』와 『용산지』에 대해서 후지나 본문에서 전혀 근거로 밝힌 부분이 없지만 이황이 지은 도산기인 도산잡영병서는 알뜰하게 인용하였다. 이 책의 여러 발문에는 이황 제자의 후손이 참가하였으나 그들이 분담한 역할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가장 강조된 부분은 이황의 역할이다. 특히 청량산에 대한 이황의 시를 가장 중요시하여 첫머리부터 실었다. 이황의 청량산에 관한 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여 다섯 분야로 구분하여 실었는데 그 범위는 청량산으로 시작하여 이를 강조하였지만 이뿐 아니라 『도산지』의 기반인 도산기는 물론이고 『용산지』의 범위를 포괄한 요소도 있다.

31) 청량산박물관, 『청량산박물관 연구총서 5, 2012.』

이항의 시는 도산기에 해당하는 도산잡영병서를 기준으로 그보다 앞서 청량산에 대하여 남긴 여러 시를 먼저 실었다. 다음으로 청량산 남쪽에서 강을 따라 도산서원에 이르는 뱃길로 관망이 가능한 도산구곡의 명소와 더불어 자연의 바위와 인공의 누대에 대한 이항의 시를 열거하였다. 다음으로 청량산의 서쪽에서 강을 건너 건지산의 산길로 능선과 고개를 넘어 용두산의 수곡암을 지나 도산서원에 이르는 길을 18편의 시문으로 실었다. 결국 도산구곡을 운암에서 청량산으로 거슬러 수록한 이이순의 『도산지』 보충에 대한 기록을 청량산을 출발점으로 역순으로 실었다.<sup>32)</sup> 전거로 간단히 인용한 이항의 시도 전문이 모두 실렸지만 이수연이나 혹은 이이순의 칠언율시나 전거는 모두 생략하였으므로 앞선 『도산지』와 이이순이 『도산지』를 수정하려던 내용을 철저히 반영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도산잡영병서를 모두 실었는데 이는 이항의 도산기를 그대로 옮겼고 여기에 관계있는 이항의 시를 더욱 보충하였다. 도산기 이후에 청량산을 찾아 남긴 시를 수록하고 주세붕의 유청량산록에 대해서도 이항의 발문을 먼저 쓰고 부록으로 주세붕의 유청량산록을 실었다. 유청량산록은 도산기보다 앞서 베풀하던 시기의 작품이고 자신의 발문도 거의 같은 시기였지만 끝에 부록으로 싣고 시보다 산문을 먼저 쓰고 선배의 산문보다 이항의 산문인 발문을 앞에 실었음이 입증된다.

산천대암집해는 네 부분으로 완성되었고 먼저 청량산의 시문에 등장하는 지명에 대한 보충 설명이고, 다음은 청량산 부근의 고산에서 뱃길로 도산서원에 이르는 명소의 보충설명이다. 다음은 도산기에 등장하는 지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산에서 운암에 이르는 지명의 보충설명이다. 『도산지』와 『용산지』가 대상으로 삼은 공간에 해당하지만 근거로 이용한 전거는 어디에도 밝히지 않았다. 산천대암집해의 근거로 제시한 연보와 언행록 고증은 각각 『퇴계선생연보』와 『퇴계선생언행록』과 『퇴계

32) 현존하는 도산도는 다양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있다. 가장 자세하고 도산구곡의 확정된 시기는 관심의 대상이다. 윤진영, 「도산도의 전통과 도산구곡」, 『안동학』16, 한국국학진흥원, 2011, 69-122쪽.

선생문집고증』을 줄인 표현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겠다.<sup>33)</sup>

산지의 취지는 도산기와도 상통한다. 그러나 명종과 영조와 정조가 그려오라는 도산구곡에 집중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구곡의 이름을 이이순이 보충하려던 『도산지』의 구곡이 실렸음을 밝혔으나 먼저 청량산에서 도산으로 전개된 산천을 서술하였고 다음으로 도산에서 운암에 이르는 순서를 서술하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량산에 지은 오산당의 창건과 증건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후지와 발문에 앞서 실은 청량정사의 창건과 건물 이름과 상량문을 거쳐 오산당증건상량문과 증건기 등을 종합하여 실었다. 청량정사가 오산당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강조한 서술이다.

『淸涼誌』를 보충하여 『淸涼誌』로 완성한다는 취지보다 청량정사에 오산당이 들어서고 이를 중심으로 『오가산지』로 종합되었다는 변화를 발전으로 강조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실제로 이 책은 후에 『오가산지』로 더 알려졌고 『淸涼誌』란 서명은 근래의 번역과 해제 그리고 부록된 자료로 간행과 보급에 의해서 오히려 가려졌다. 그러나 이 책은 새롭게 평가할 향상된 요소가 무엇보다 운암에서 시작하여 낙동강 상류로 도산구곡을 거슬러 청량산에 이르는 이이순의 『도산지』 수정의 순서를 충실하게 지키고 시문을 보충하였다.

이 책의 취지는 도산구곡을 순서를 청량산에서 낙동강을 따라 운암에 이르는 순서로 바꾸고 이황의 시문을 더욱 살살이 찾아 보충하고 강조하였다. 그보다 앞선 이현보나 주세붕의 산문에 대해서는 생략하거나 심지어 주세붕의 유청량산기에 대해서 이황이 쓴 후지를 앞에 놓고 다음에 주세붕의 원문을 뒤로 돌려서 순서를 바꿨다. 이러한 약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세택의 『청량지』보다 3할 가량 증보된 내용에는 분실된 『도산지』나 초고의 『용산지』에서 생략한 이황의 시문을 적지 않게 보충된 노력은 높이 평가될 부분이다. 다만 도산구곡에 포함되는 농암이나

33) 『퇴계선생언보』는 柳成龍(1542-1607)이 정리한 6권이고 『퇴계선생언행록』은 李守淵((1693-1748)의 저술이고 『퇴계문집고증』은 柳道源(1721-1791)의 저술로서 8권이다.

청량산에 대한 국문가사가 앞선 사지와 마찬가지로 모두 배제되었으므로 아쉬움이 있다.

이현보와 주세붕은 이황의 전도에 여러 모로 개척하고 도와준 공적이 많다. 이황이 지었다는 많은 국문가사는 이후에 그의 사상이 일반사회에 확대되어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정도로 사회에 깊이 영향을 주었다. 명종은 도산구곡에 화원을 보내어 그리도록 지시하였다. 영조와 정조도 이황의 자연에 몰입된 수기를 중심으로 삼은 수양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황은 무이구곡에 따라서 도산구곡을 설정하지 않았다. 국왕은 도산구곡이 설정을 알고 싶었지만 이를 굳이 내세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수연이나 이세택은 개인의 저술보다 이황의 저술에 충실하여 이를 보충하거나 산지로서 완성하기에 몰두하였고 이를 수기의 지름길로 간주하였다. 이황의 후손도산구곡의 확정을 기피하였던 조상의 의도를 준수하였을 가능성마저 짐작된다.

이만여가 중심적 역할로 완성한 『淸涼誌』는 이세택이 지은 『淸涼志』를 도산구곡을 설정하여 보충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오산당을 기념한 여러 글을 후지와 발문 앞에 붙이고 『오가산지』라고 강조하고 『淸涼誌』를 부제로 붙였다. 결국 『청량지』보다 『오가산지』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오히려 발문에 등장한 이황의 후손보다 제자의 후손을 다수 등장시킨 취지와는 차이가 있다. 결국 이만여와 이중균이 이황의 후손으로 제자의 후손이 만든 『청량지』를 『오가산지』로 모아서 변형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이 책은 『오가산지』보다 도산면과 관련된 네 가지 산지 중에서 가장 늦게 가장 많은 분량인 산지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淸涼誌』라 해야 옳다.

이 책보다 앞선 이세택의 『청량지』는 물론 최초의 산문과 시가 포함된 도산기에서 발전한 『도산지』와 『용산지』도 종합하고 오산당의 건립에 한한 문헌을 증보한 최종판 산지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만여는 장문의 후지에서 이에 『도산지』와 『용산지』의 존재여부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여러 사본으로 보존되었던 이세택의 『청량지』와 『용산지』를 넘어서 종합하거나 향상된 『청량지』를 만들겠다는 뚜렷한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앞선 『淸涼志』와는 달리 『오가산지』라고도 불린 『淸涼誌』에는 향상된 요소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청량산에 대한 이황의 시문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정리하여 권1을 권2의 갑절이상으로 분량을 확보하였다. 또한 수로로 청량산에 남쪽에 이르는 도산구곡은 물론 청량산의 서쪽으로 접근하는 산길에 관한 시문을 수집하였다.

물이 많은 여름철 달밤이나 초가을 도산구곡을 무이구곡으로 연상시키면서 음미하는 장면은 농암에서 어부가를 즐긴 이현보가 이미 은자의 멋을 보였다. 권1의 도산기와 이이순이 보충하려던 『도산지』의 간단히 근거를 밝힌 시문만 모두 살려도 충분한 소재와 분량이 된다. 다만 청량산에 접근하는 길을 물길과 산길로 나누어 서술한 착안이 돋보인다. 또한 출발지를 청량산의 남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는 이이순이 지적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도산구곡의 서술과 다르지만 청량산을 강조하여 그곳을 출발점으로 삼을 경우 불가피한 요소가 있다. 산길로도 건지산이나 용수산 능선과 고갯길을 따라 청량산에서 도산서원에 이르는 길은 이황의 시로만 메꾸지 말고 이현보와 주세붕, 이우와 이해, 그리고 제자가 살면서 썼거나 그곳을 지나면서 남긴 시인묵객의 시문까지 합쳤다면 분실하거나 잃어버린 『도산지』와 『용산지』를 종합한 수준을 능가하는 완성된 종합산지가 청량산을 중심으로 완성되었으리라는 기대도 가능하지만 진성이씨로 오가산지로 축소시켰다고 확인된다.

오산이란 佛家에서도 사용한 용어지만 오가산이란 퇴계의 경우에 儒家나 주자학도를 지향한 표현이고 어느 문중에 국한된 표현은 아니었다. 청량산에서 청량정사를 오산당으로 확장하고 가문의 중심역할을 강조하였으므로 공유하는 자연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도 지장을 준다. 주세붕은 수산에서 청량산으로 이름을 바꿔서 명산을 부각시켰고 답사한 다음 남긴 청량산에 대한 시문을 갑절로 늘려서 이황에게 전하였다. 이 가운데서 이황은 벼슬하기 앞선 시기는 물론 벼슬을 멀리하고 도산에서 만년에 청량산을 찾은 현인으로서 그가 남긴 시문 가운데서 특히 청량산에 관한 시문은 이곳을 명산의 반열에 올리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그보다 앞서거나 뒤에 남긴 다른 청량기도 이황의 시문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를 모아서 『청량지』를 충실하게 완성하였다면 몇 권으로 확대되고 둘째 권은 첫째 권의 절반도 못되는 기형으로 끝나지 않았으리라 확인된다.

『청량지』는 앞선 도산면의 삼산지를 어느 정도 수렴하고 이후의 변화를 담았다는 연구는 앞으로 향상된 삼산지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이글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적인 과제를 제안하고 간편하고 종합적인 산지의 완성에서 갖추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도산지』에서 『淸涼誌』로 그리고 『용산지』에 이르는 세 가지 산지와 이후의 종합한 『淸涼誌』에 대한 보충한 부분은 적지 않았으나 『오가산지』로 축소시킨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다.

『청량지』는 청량산을 중심으로 썼지만 앞선 『청량지』와 『용산지』에 실린 내용에 이황의 시문을 추가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황이나 그 후손에 대한 기록과 후지와 발문을 제외하면 후손이 아닌 다른 문중의 자료가 생략된 자료가 많다. 이로 보면 『오가산지』로 변형됨으로써 『청량지』로 종합하려던 최후의 종합한 삼산지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량산은 주세붕과 이황이 명산으로 부각시킨 이래 끊임없이 선비들의 유람과 답사, 그리고 각 방면의 시문이 있었다. 이를 다양하게 분류하여 종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람록만 각 시대별로 종합하여 수집하고 번역하여 근래에 청량산박물관에서 방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간행한 청량산 유람록이 34) 이 방면에 도움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황에 대한 문헌으로 그가 지었다는 한글가사가 산지에 수록된 사례가 없다. 청량산과 도산과 퇴계와 어부가와 주자학의 도덕가를 비롯한 구전을 후대에 수록했다는 국문가사는 적지 않다.35) 이 가운데는 후손이 지었거나 이황을 저자로 간주한 가사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4) 청량산박물관,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11-3, 청량산박물관 연구총서 1-3, 2012.

35) 담양의 한글가사문학관에서 정리한 미해제 가사에는 도산십이곡을 제외하고도 퇴계와 도산과 청량산에 관한 가사와 심지어 이현보와 관련된 어부가조차 이황의 작품으로 실린 가사집이 31건이나 실려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산기를 비롯하여 『도산지』의 일부와 『청량지』와 『용산지』에는 국문가사가 실린 사례가 없고 또한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종합하려는 노력도 간과되었다. 노래란 짓고 불린 시기에 수록되기보다 오랜 기간 구전으로 애용된 다음 채록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표현에 변화가 많고 작자조차 틀리게 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항 후손인 여성이 지은 청량산을 답사한 작품이 전한다. 그러나 작가에 대한 사실적인 연구조차 없는 가사에 포함되었으므로<sup>36)</sup> 이항의 가사가 계층과 성별을 극복하여 널리 영향을 주었던 관련 있는 가사를 종합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 VI. 맺음말

산의 기원은 유구하지만 산의 이름은 후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안동시의 동쪽에 위치한 陶山이 알려진 시기는 의외로 늦으나 오늘날 도산면의 기원과 관련이 크다. 도산면의 출발은 용산에 속한 온계의 끝에서 동쪽으로 펼쳐진 도산의 아래 토계에 이항이 만년에 터를 잡고 가꾸면서 비롯되었다. 도산은 이항이 이곳에 거주를 위한 양진당과 교육의 도산서당을 마련하고 자연에 묻혀서 修己의 철학을 주자학과 자연의 애호를 일치시킨 이후에 알려졌다. 陶山記는 이항이 자신의 포부를 도산서당을 공표한 최초의 산문과 시를 합쳐 나타낸 방향이고 계획서였다. 이항의 후손과 제자의 후손이 협력하여 완성한 세 가지 산지 『陶山志』, 『淸涼志』, 『龍山志』의 기초가 되었으나 변화시키거나 확대시킨 요소도

36) 대표적인 사례가 순 한글 가사 『청량산뉴산록』이다. 국학진흥원소장이고 담양 한국가사문화관 소개 미해제자료에 포함되어 전문이 소개되었다. 이 노래의 작자를 안동 선비수련원장게 문의한 결과 이동수 안동문화원장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었다. 작품의 작자는 하계 李中馨(1858~?)의 따님이시고 惺齋 琴蘭秀의 후손 琴學洙의 배위로 확인되었다. 이 가사를 미해제에서 해제가사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도움을 주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적지 않았다.

도산면이 위치한 안동시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소백산맥을 넘어 남한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이다. 신라와 고려의 전성기에는 대체로 상주보다 지역의 위상이 낮았으나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한 이후 상주를 능가하는 계수관으로 발전하였고 조선시대를 비롯하여 이후에도 대체로 그 위상을 계승하였다. 도산기는 삼산지를 포함하여 종합한 『吾家山誌』라고도 불린 『淸涼誌』로 종합되기까지 꾸준히 자료를 보충하거나 간추리고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도산지』는 이황의 6세손 이수연이 이황의 도산기를 순서대로 더욱 보충하였다고 짐작되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이황의 도산기나 이수연의 『도산지』는 도산 부근의 七臺三曲을 언급했을 뿐이지 이이순이 제시한 도산의 서쪽 雲巖에서 시작하여 낙동강을 거슬러 동쪽 청량산에 이르는 도산구곡의 보충은 이이순의 『후계집』에 실린 『도산지』를 도산구곡에 대해서 보충하려던 詩并序에서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1) 도산을 서서로 9곡의 이름을 칠언절구로 배치하고 2) 앞선 지명에서 방향과 거리를 표시하였으며 3) 마지막으로 이황의 시문에서 찾아서 관련된 부분을 축약하여 전거로 붙였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이수연의 『도산지』를 이이순이 보충하려던 부분에서 도산구곡이 명시되었다. 또한 『도산지』에는 산천에 해당하는 도산구곡이나 『청량지』와 『용산지』에 설정한 다른 항목이 있었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淸涼誌』에서 이이순의 도산구곡을 확정하였던 성과를 수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세종이 승하하고 세조가 즉위하는 과정에 왕위 계승이 순조롭지 못한 정변과 이에 불만이 많았던 사림에 대하여 탄압하였던 사회의 피해를 체험한 이황은 그의 만년을 자연에 묻혀 수기로 일관하였다. 소극적인 은둔이 아니라 자기를 단련하여 치열한 사회운동을 일으킨 개혁가이다. 그는 수기와 교육을 통하여 지방사회에 주자학을 정착시킨 공로는 이보다 앞선 지방관으로 보여주었던 선구적인 노력을 도산에서 실현하였다. 자서전의 일부에 가까운 도산기에서 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큰 계획을 그렸다. 관인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어려운 시대를 앞서서 사림의

방향을 제시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만년은 물론 후대에 추앙을 받은 인간상을 구현하였다.

이황은 주희의 무이구곡을 흠모하여 생애의 마지막 목표를 삼았으면 서도 도산기에서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칠대삼곡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도산구곡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남기지 않았다. 도산구곡은 8대손 이이순에 이르러서야 확정되었다. 이황의 도산기와 이를 『도산지』로 구체화한 이수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이순의 『도산지』 보충에 이르는 꾸준한 노력이 영조와 정조에 이르는 오랜 기간 국왕의 관심과 이에 부응하면서 도산구곡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산지는 실제로 훨씬 지난 후였다. 세 가지 산지는 주희의 무이구곡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도산에 구곡을 이는 이황의 수기의 철학에서도 배제가 불가피한 범위에 속하였다.

현실의 과제를 선구적으로 개척하고 시대의 과제를 설계한 인물은 보기 드물다. 이황이 지은 도산기에서 비롯하였으나 후대의 세 가지 산지를 통하여 시대의 상황과 이를 적용하지 않은 도산구곡이 이후에야 확정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지방사회의 변화는 이황과 그의 제자의 후손들이 이룩한 산지라는 좁은 성과를 통해서도 아주 느리지만 꾸준하고 철저하게 계승하고 완성되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修己라는 철학은 소극적이지만 治人이란 적극적인 활동의 기반이 된다. 이황은 수기를 대인유로 간주하였고 치인을 小人儒로 멀리하였다.<sup>37)</sup> 주자학이란 지방사학의 확장이었고 서원을 통하여 신분사회를 고착시킨 일면도 있었다. 그러나 북송의 성리학과 남송의 주자학은 조선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순서와 관계가 있었고 이를 기본으로 삼았음에 틀림없다.

이황은 겸손하고도 성실하였다. 이황과 제자의 후손은 더욱 철저하게 사상을 계승하여 연구하고 실천하였다. 명종이 생전에 도산서당을 그리게 하고 이황을 등용시키려 하였고 선조도 이황을 추념하고 도산서원을 그의 서거 후 5년 지나 賜額하였다. 이황이 가꾸었던 양진암이나 도산서

37) 이황은 논어의 小人儒와 大人儒의 차이 있는 실천을 주희의 무이구곡에서 찾고 수기의 철학을 대인유로 확신하였다.

당은 자연과 어울린 소박한 형태였으리라 예상된다.<sup>38)</sup> 이황은 도산 부근을 주희의 무이구곡에 비유하였지만 그의 생전은 물론 후손이 지은 세 가지 산지에서조차 도산구곡을 확정하였다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영조와 정조도 도산서원이나 도산구곡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지만 그때에도 도산구곡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황의 후손으로 이수연이나 이세택에 의하여 도산과 청량산과 용산에 대한 각각의 삼산지가 저술되었다. 대체로 이황의 기본정신인 자연과 어울린 생활의 소박함과 수기의 실천에 성실함으로써 도산구곡을 서술은 늦게야 이이순이 『도산지』에 보충하려고 확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조선 말기에야 『오가산지』를 내세우고 오산당이란 청량산에 세운 건물을 세우고 가문의 운영을 강조한 『淸涼誌』를 『오가산지』로 축소하여 처음 수록하였다.

이황의 후손이 주도하여 완성한 4종의 산지를 살펴면서 원형이 그대로 계승된 『용산지』와 이보다 앞서 완성되었으나 없어진 『도산지』를 추적하면서 서술의 변화를 살폈다. 『淸涼誌』를 제외하고 원형에 추가하거나 삭제한 『淸涼誌』에 이룰수록 산지의 종합과 오산당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였다. 앞으로 『도산지』를 찾거나 복원하고 이 글보다 철저한 산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다양한 문헌자료와 유적을 종합하여 만족할만한 산지가 확립되길 기대하고 남은 과제를 지적하였다.

『도산지』는 퇴계 이황의 행적과 저술을 이해하기 위하여 출발되었다. 그러나 산지를 통하여 도산구곡이 확정된 과정조차 퇴계의 생전이 아니고 이후인 이이순의 『도산지』를 보충하려던 자료와 연결시켜 접근이 가

38) 이이순보다 늦게 柳致禧(1800-1862)는 그의 문집에 이이순이 확정한 도산구곡과 이황이 도산기에서 정리한 칠대삼곡을 중심으로 퇴계구곡을 대비시키는 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남겼다.

『東林集』 권1, 詩 次漱石亭二九曲韻,

陶山九曲: 雲巖寺曲, 月川曲, 鰲潭曲, 汾川曲, 濯纓潭曲, 川沙曲, 丹砂曲, 孤山曲, 淸涼曲

退溪九曲: 絲練津曲, 養眞庵曲, 竹洞曲, 鶯鳴瀨曲, 古藤巖曲, 林富洞曲, 羊坪曲, 淸吟石曲, 雙溪曲

능하였다. 청량산에 접근하는 방법도 낙동강상류의 운암에서 출발하여 거슬러 올라가 중간의 도산서원과 청량산 서남으로 진입하는 물길을 따라 구곡과도 관련이 있었다. 강물이 풍부한 장마와 초가을에 강에서 구곡을 확인하면서 무이구곡과 일치된 풍경을 완성한 서술은 이이순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 안동댐으로 물길의 이용은 향상되었지만 수몰된 지역이 본래의 모습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단점도 있다. 가장 늦게 완성된 『淸涼誌』는 능선과 고개를 따라 수곡암과 火嶺과 霞嶺을 지나 청량산의 서쪽으로 접근하는 산길을 소개하였다.

도산기에서 『淸涼誌』에 이르는 여러 산지는 자연에 밀착하여 수기라는 인격의 도야에 초점을 둔 주희의 철학이 강조된 특성이 있다. 또한 사림의 집단 의식을 강화하였으나 조선 말기에 간행된 『淸涼誌』에는 수기의 철학보다 문중으로 축소된 吾家山을 강조한 요소도 있다. 또한 노래를 통하여 신분과 성별을 막론하고 폭넓은 교화의 교재로 접근할 수 있는 국한문가사는 모든 산지에서 제외하였다. 이황의 자연과 수기에 대한 철학이 가사를 통하여 일반사회에 널리 유행된 요소는 이황을 저자로 가탁하여 계승된 적지 않은 국문가사와 여성의 규방가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이황은 가사에 대하여 주세붕의 별곡체를 극복하고 이현보의 어부가에 대한 변용과정에서 소상하게 소개하였다. 도산십이곡의 연시조에서 국한문혼용의 시가문학에 대한 실용성을 경험으로 남겼다. 그의 후손에 이를 계승하여 국문가사를 인격도야의 음악으로 발전시킨 요소가 산지에서 간과되었다. 이를 합쳐서 산지에 반영시킨 적극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황의 만년에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소수서원에 이어 주자학의 실천을 지방사회에 심화시키는 움직임에 대하여 국가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를 살피도록 명종은 그림으로 도산을 그려오도록 조치하였다. 단순한 동기에서 도산서당의 그림을 기획하였다기보다 그곳 사림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후손은 이후에도 이를 감지한 조상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관인으로 출세하여 현실의 개혁

보다 수기를 토대로 국왕의 스승으로 도덕을 강조한 이황이 기울인 노력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도산구곡을 서둘러 설정하거나 호남의 정여립처럼 교육보다 사회의 혁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도산서원이나 가문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하겠다.

도산은 오늘날 도산면이 출발한 기원이지만 이황이 가꾸기 전에는 이름 없는 낮은 산이었다. 이황의 도산기는 그가 달성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포부이었지만 자신을 완성하려는 수기의 자세를 벗어나지 않았다. 도산기는 조선 후기의 『도산지』와 『청량지』, 그리고 『용산지』로 대표되는 산지의 출발점이었고 그의 후손과 제자의 후손이 이룩한 주자학을 완성시키는 단계와도 판근여이 깊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淸涼誌』는 『吾家山誌』로 알려졌으나 조선 후기에 이룩한 앞선 세 가지 산지를 충분히 종합하지 못하고 청량산의 명성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황의 저술과 언행에 대하여 실천과 정리에 평생을 바친 이수연과 柳道源(1721~1791), 그리고 이세택의 저술은 새롭게 평가할 대상이다. 산지뿐 아니라 이황의 철학을 정치적 이용과 가문의 전용에서 벗어나 그의 학문을 폭넓게 향상시키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므로 이를 합쳐서 새롭게 산지를 이해하고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 이 논문은 2021년 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春秋館 實錄廳, 『朝鮮王朝實錄』(1413-1865), 國史編纂委員會 編, 探求堂, 1972.
- 奇大升, 『高峯集』續集,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委員會.
- 金昌翁, 『三淵集』, 동상.
- 李守淵, 『靑壁集』, 동상.
- 李頤淳, 『後溪集』, 동상.
- 李滉, 『退溪集』, 동상.
- 『龍山志』, 안동 용수사 소장본.
- 청량산박물관,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11-3, 청량산박물관 연구총서 1-3, 2012.
- 청량산박물관, 『국역 청량지 淸涼誌』 청량산박물관 연구총서 4, 2012.
- 청량산박물관, 『국역 오가산지 吾家山誌』 청량산박물관 연구총서 5, 2012.
- 윤진영, 「도산도의 전통과 도산구곡」 『안동학』 16, 한국국학진흥원, 2011.
- 허홍식, 「용산지의 서지와 보충할 과제」 『경북불교의 재발견』 한국국학진흥원, 2017.
- 한국가사문학관, <http://www.gasa.go.kr/>

Abstract

## The three mountain anthology in Dosan-myeon, Andong

Heo, Heung-sik

Dosan陶山, located in the east of Andong City, Gyeongbuk Province, was known after Yi Whang李滉 (1501-1570). Dosan is largely related to the origin of Dosan-myeon today. Dosanji was written by Yi Hwang and was led by Yi Hwang's descendants to form the foundation of three mountain anthology: Dosanji陶山志, Cheongnyangji清凉志, and Yongsanji龍山志, which were expanded. Although Dosan-gi is not out of the seven major valleys, the supplementation of Dosan-gugok, which starts from the west of Dosan to the east of Cheongnyang Mountain from the Nakdonggang River, was found in Dosan-gugok, which was published in Yi Yi-sun's works.

Andong City, where Dosan-myeon is located, is located in upper reaches of the Nakdong River and is an important route to the Namhan River basin beyond the Sobaek Mountain Range. During the heyday of Silla and Goryeo, the status of the region was generally lower than that of Sangju, but after King Gong Min's moving to Andong, he developed into a counter that surpassed that of Sangju, and was generally inherited from the Joseon Dynasty and later on. Dosanji continued to supplement or summarize data and reflect the situation of the times until the Cheongnyangji and Yongsan sites, including

Samsanji, were merged into Revised Cheongnyangji 淸涼誌, also known as Ogasnji 吾家山誌, which completed the will to expand the foundation of Jinseong Yi Clan.

Dosanji is presumed to have been further supplemented by Yi Hwang's sixth-generation descendant Yi Su-yeon, but it does not exist. Yi Hwang's Dosangi or Yi Su-yeon's Dosanji mentioned seven pavilion and three vasen 七臺三曲 near Dosan. According to Yi Yi-sun's suggestion, 1) Dosan was named as seven characters poem, and 2) direction and distance were marked from the name of the front line, and 3) Lastly, the relevant parts were abbreviated and added as jeonsae. Among these three, Dosan Gugok was specified in the part that Yi Yi-sun and Yi ya-sun tried to supplement. It is unlikely that there were other items set up in Dosan nine corners or Cheongnyangji and Yongsanji in Dosanji, but it is highly likely that Lee Yi-sun's supplement Dosanji was referring to the confirmation of Dosan nine corners

**keywords :**

Yi Hwang, Dosangi, Lee Se Taek, Cheongnyangji, Yongsanji, Dosan Gugok, Yi Yi Sun